

時代名	主要人物	정 치 · 사 회 · 경 제	문 화 · 기 타
아츠지 시 대	오 다 노부나가	<p>1. <b>센구쿠 시대</b> : 일본의 중세. 15~16세기, 대항해 시대, 명나라 해금 정책, 후기왜구</p> <p>2. <b>남만무역</b> : 다네가시마 표창, 규슈의 히라토, <b>뎃포</b> * 기독교 전파 : <b>기독교 영주</b>.</p> <p>3. <b>천하통일 배경</b> : 전국적인 잇키 억제, 상공업 발달, 전국 규모의 상품 유통, 하극상 풍조 단절 필요성</p> <p>4. <b>오다 노부나가</b> : 오와리 지역, 천하포무, <b>오케하자마 전투</b>, 도쿠가와 이에아스와 동맹, 기후성 移住</p> <p>* 히에이잔의 <b>엔라쿠지 불태움</b>, <b>잇코잇키 세력 제압</b>(혼간지, 승려 겐노의 항복. 정토진종), 아츠지성 축조</p> <p>* <b>조카마치 변영</b> : <b>라쿠이치</b>, <b>라쿠자 정책</b> * <b>세키쇼 철폐</b></p> <p>* 교토 혼노지에서 아케치 마쓰히데 습격으로 사망 (<b>혼노지의 변</b>) : 평야 지방 근거지, 혁신적, 진취적 성격, 뎃포 위력</p>	<p>1. <b>아츠지·모모야마 문화</b> : 중세에서 근세로의 전환</p> <p>* 현세 구가 : 사원 세력 타격, 지배 계급 지위 탈취</p> <p>* 신선하고 호화로움 : 남만 외래 문화, <b>일본의 르네상스</b></p> <p>* 성곽과 저택의 건축 : 복층의 덴슈가쿠, 해자 설치 → 아츠지성, 후시미성, 오사카성은 천하통일의 위세 → 쇼인츠리 거관, 후스마와 벽, 다에이 양식의 장벽화</p> <p>* 장벽화 : 가노파 (가노에이코쿠. 기노 산라쿠)</p> <p>* 가이호 유소, 핫[가와 도하쿠 : 장식적 작품, 수목화</p> <p>* 란마 조각, 마에키 배경의 가구, 건축 장식물, 서적출판</p>
모모야마 시 대	도요토미 히데요시	<p>1. <b>통일 사업 계승</b> 노부나가 후계자 지위 구축, 오사카성 축조(1583), 이에아스 연합군에 패배 후 동맹관계</p> <p>2. <b>천황과 관계</b> : 주라쿠다이 건물(천황 환대, 권한 활용), 소부지레이(영국의 확정 권한). <b>公家の 길 선택</b></p> <p>3. <b>전국 통일 완성</b> <u>다이묘들의 복속, 중앙 집권 실현, 기존 영지와 농민의 연고 단절, 후시미로 거쳐 이동</u></p> <p>* 주요 도시를 직할지로 한 <b>부유 상인 통제</b>, 주요 광산의 직할지화,</p> <p>* <b>병농분리 완성</b> : <b>다이코 검지</b>(석고제, 토지 영유 정리, 소농민 경작 자립), <b>가타나카리 정책</b> (무기 소지금지), <b>히토바레이레이</b>(신분 통제령)</p> <p>* <b>대외 정책</b> : 기독교 신자의 허가제, 선교사 추방령, 왜구의 해적 행위 금지</p> <p>* <b>조선침략</b> : 분로쿠노 에키(1592), 케이초노 에키(1597) → 정권 쇠퇴의 원인, 인쇄술 도입, 도공 연행</p> <p>* 중앙정부 조직 부족 : <b>다섯 부교</b> * 선진 지대 장악</p>	<p>2. <b>마치슈의 생활</b> : 오사카, 사카이, 하카타</p> <p>* <b>茶道</b> : <b>와비차</b> (센노 리큐), 다회, <b>무가와 상층부 조닌</b></p> <p>* <b>꽃꽂이</b> (이케바), 향도, 노가쿠, 가부키 오도리(온나가부키)</p> <p>* <b>닌교 조루리</b> : 오키나와 민속, 샤미센 반주</p> <p>* <b>식사 회수 증가</b>(3회), 이층 건물, 기와 지붕 보급</p> <p>3. <b>남만문화</b> : 근세 사회 초기의 이국 정서의 문화</p> <p>* 천문학, 의학, 지리학, 역학, 동판화, 남만 병풍, 활자 인쇄기</p>
에도시대	도쿠가와 이에아스	<p>1. <b>에도 막부</b> : 1603년 세이타이 쇼군에 임명되며 막부를 엮</p> <p>* 미카와 지방의 일개 토호 출신 <b>도쿠가와 이에아스</b> : 노부나가 세력의 일원, 관동지방에서 세력</p> <p>* 동군과 서군의 격돌 : <b>세키가하라 전투(1600년)</b>에서 승리하며 점차 독자적인 정권 수립에 착수</p> <p>* 오사카의 히데요리 세력 공격 : 호코지 종명사건, 오사카성 함락(1615년) → 이에아스의 사망 (1616년)</p> <p>2. <b>막번체제</b> : 강력한 영주제를 지닌 쇼군과 다이묘가 토지와 백성을 통치하는 지배 체제</p> <p>* 국가 기구로써 단순한 정치 기구가 아닌 이를 지탱하는 <b>사회 구조, 생산 구조 체제</b>임</p> <p>* <b>다이묘</b> : 영지를 가진 영주의 총칭, <b>신판다이묘</b> (고산케, 오와리, 기이, 미토), <b>후다이 다이묘, 도자마 다이묘</b></p> <p>* <b>번</b> : 다이묘가 지배하는 영지와 그 지배 기구, 원칙적으로 독자적인 법에 의해 지배되는 공간</p>	

	<p>3. <b>막부의 제도 정비</b> : 2대 히테타다, 3대 이에미쓰 쇼군 시절 정비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쇄국 체제 강화, <b>一國一城令</b>(다이묘의 거성을 한 곳으로 제한), <b>무가제법도 (산킨고타이)</b></li> <li>* 城의 축조 금지, 큰 선박 건조 금지, 다이묘끼리 결혼 금지</li> <li>* 다이묘, 공가 귀족, 사원에게 영지 소유권을 확인하는 문서를 발급</li> </ul> <p>4. 제3대 쇼군 <b>도쿠가와 이에미쓰</b> : 규슈의 다이묘 처벌 (권력의 광범위화), 1634년 교토로 진격 다이묘의 쌀 생산량에 따라 병력, 말의 준비, 전시에 쇼군의 명령에 따라 출진, 에도성의 수축과 하천 공사</p> <p>5. <b>쇼군의 군사력, 경제력</b> 400만석의 <b>직할령(덴료)</b>, 하타모토 영지, 관산 수입, 무역상의 상납금, 화폐 주조권</p> <p>6. <b>막부의 군사력</b> : <b>하타모토</b>(직속의 가신단), <b>고케닌</b>, 여러 <b>다이묘가 부담하는 군역</b></p> <p>7. <b>막부의 행정 조직</b> : 쇼군을 정점으로 로주, 와카도시요리, 오메스케, 메스케, 3부교 체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로주(정부 출괄), 다이로(쇼군 교체시기, 주요 사항 결정) 와카도시 요리(하타모토 감독)</li> <li>* 오메스케(다이묘 감찰), 메스케(하타모토 감찰), 지사부교(사원, 신사), 간조부교(덴료 통제, 재정) 에도마치부교(에도의 행정 총괄). 효쥬쇼(재판기관으로 3부교, 오메스케, 메스케로 구성됨)</li> </ul> <p>8. <b>지방 조직</b> : 교토 소시다이, 군다이, 다이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지방지행제</b> (다이묘에게 영내의 무력무사에게 영지를 지배하는 권리를 주는 제도)</li> <li>* <b>봉록 제도</b> (직할령의 연공을 구라마이(藏米)로 지급하는 제도)</li> </ul> <p>9. <b>조정과 사원의 통제</b> <b>금중병공가제법도</b>, <b>제종사원법도</b>, <b>에후미 강화(기독교)</b>, <b>데라우케제도</b> (불교 개종)</p>	<p>10. <b>마을과 백성</b> <b>혼바쿠쇼</b>(마을 운영), 무라우케세이 (마을 자치적으로 연공, 과역 할당, 수납 기능), <b>무라하치부</b>, <b>고닌구미</b></p> <p>11. <b>농민 규제</b> 농지 매매 금지령, <b>분지제한령</b>, 논, 밭에 담배, 목면 재배 금지, 농민의 경락지 이탈 금지</p> <p>12. 도시와 <b>조닌</b> (도시 상공업자로 마치가타에 거주함) : 연공에서 해방, * <b>조카마치</b> : 다이묘의 거성을 중심으로 발달, 무사의 이주, 상인과 수공업자의 영업 자유와 택지 연공 면제 * 쇼쿠닌 : 도시 주민으로 기술 숙련</p> <p>13. <b>신분질서</b> * <b>士農工商</b> 제도, 무사의 주종제, 조닌의 조, 쇼쿠닌의 나카마 등 단체와 집단마다 조직됨 * <b>무사 계급</b> : 정치와 군사 독점, 묘지(苗字), 대도의 특권, 기리스테고멘 → 다이묘, 하타모토, 고케닌으로 구성</p>
	<p>1. 막부의 대외 정책 : 평화적인 대외 관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네덜란드, 영국에게 무역을 허가(1613년. 하라도 상관), 이토와푸 제도, 주인선 제도,</li> <li>* <b>기독교 금교</b>(직할령의 금교령), <b>무역 이익 독점</b>(기항지 제한, 일본인 해외 도항 금지)</li> <li>* <b>시마바라의 난</b> : 가혹한 연공 징수, 기독교 탄압에 대한 백성과 토호의 저항</li> <li>* 쇄국 정책 : 포르투갈 선박 내항 금지, 네덜란드 상관의 <b>나가사키 데지마 이전</b></li> </ul> <p>2. 나가사키 무역 : 유럽 문물 수입, 네덜란드 풍설서, 청나라 성립으로 무역액 증가</p> <p>3. 조선과의 통교 (1609년, 기유약조) 류큐 왕족 복속 (17C 초. 사쓰마번) 에조치(1669년. 아이누족. 마쓰마에번)</p> <p>4. 에도의 발전 : <b>다이묘들이 비용 제공, 히비야만 매립, 바다를 매립한 쓰쿠다지마, 에도성 축조</b></p> <p>5. <b>에도의 인구</b> : 겐로쿠 시대(35만명), 교호(50만 명), 세계 최대 인구, <b>오에도 의식, 에도코 의식</b></p> <p>6. <b>에도의 중심지 니혼바시</b> : 전국 교통의 중심지, 수산 시장, 가부키 극장, → <b>조닌의 지원</b></p> <p>7. <b>에도의 주거지</b> : 야마노테(다이묘, 하타모토, 고케닌) 시타마지(조닌) 사사지 (에도성 방어 기점) * 무사 거주지 70%, 조닌, 사사지가 15%. <b>나가야</b> (서민의 주거 건물)</p>	<p>1. <b>간에이 문화 (1624 ~ 1643)</b> : 전후의 새로운 경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문 분야 주자학 중심의 유학 (후지와라 세이카), 제자 “하야시 라잔”</li> <li>* 건축 분야 영묘 건축 (닛코 도쇼구), 곤겐즈쿠리(신사), 스키야즈쿠리(쇼인즈쿠리+다실)</li> <li>* 회화 분야 - 가노파의 가노 탄유, - 다와라야 소다쓰 : 교토. 도사파 장식화 → 린파의 선구 - 혼아미 고에스 : 서예, 마키에, 도예</li> <li>* 도자기 분양 : 규슈, 주고쿠 지방의 도자기 생산</li> <li>* 문예 방면 : 가나 조시(교훈, 도덕) 하이카이</li> </ul>

	<p>3대 쇼군 도쿠가와 이에미쓰</p> <p>4대 쇼군 도쿠가와 이에쓰나 (1651년)</p>	<p>1. 막번 체제 확립 : 조정 압박, 다이묘 몰락, 로닌 단속, 농민 간섭, 기독교 금교 / 쇄국의 단행</p> <p>2. 로닌과 가부키모노 대책 : 이상한 옷차림, 질서를 어지럽힘 : 체포하여 에도의 뒤송송해짐</p> <p>3. 유이 쇼세쓰의 난 (1651년) :</p> <p>4. 무단정치에서 문치 정치로 전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이묘에 대한 정책을 완화함(1663년) : 순사 금지, 다이묘 영지 인정</li> <li>* 군역 부담 완화, 번정의 안정, 번주 권력 강화.</li> </ul>	
<p>에도시대 겐로쿠 시 대</p>	<p>5대 쇼군 도쿠가와 쓰나요시 (1680년 ~ )</p> <p>야나가사와 요시아스 (쇼바요닌)</p>	<p>1. 막부 정치의 안정기 : 정무의 직접 관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쇼군의 정치 강화 : 신상필벌주의, 관료 조직 감사 강화, 조닌의 사치 풍조 필벌, 弓馬의 道 (文武忠孝 장려)</li> <li>* 유교를 중시했다 : 유교정치 → 공자묘인 유시마 세이도 (공자 성당) 세움</li> <li>* 불교에도 귀의(歸依)해, 1685년부터 20년 넘게 ‘쇼루이아와레미노레이(生類憐みの令)’를 발표해 개를 소중히 여기고 모든 생물을 살해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 : <u>무력 살상을 부정함</u></li> </ul> <p>2. 겐로쿠 시대의 사회상 : ① 농민 생활 안정 ② 상품 경제의 발전 : 상인의 경제적 실권 장악</p> <p>3. 화폐 대량 유통으로 막부 수입 증가, 반면에 물가 폭등으로 사람들의 생활이 어려워짐 연공 이외의 재정 수입 확보 (전매 제도, 상인의 헌납금 등)</p>	<p>1. 겐로쿠 문화의 발흥 : 에도 시대의 최대 번성기</p> <p>가. 겐로쿠 문화의 특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상업과 경제의 중심지인 가미가타(上防.오사카, 교토)가 중심</li> <li>② 조닌이 문화의 중심</li> <li>③ 조닌 생활을 반영하여 현실적이며 인간성을 존중</li> </ol> <p>나. 상품경제가 발전하고 물가가 상승하면서 무사는 점점 궁핍해짐 다. 이 시대는 막부 체제가 안정되어 경제가 눈부시게 발전하였다 : 따라서 무사와 유력 조닌 뿐만 아니라, 민중에 이르기까지 다채로운 문화를 꽃피웠다.</p> <p>라. 겐로쿠 문화의 담당자는 교토와 오사카의 조닌이었다</p> <p>2. 겐로쿠 문학</p> <p>가. 이하라 사이카쿠(井原西鶴) : 우키요조시(浮世草子.조닌과 무사의 생활과 심정을 묘사한 소설), 호색일대남(산문. 베스트셀러), 호색오인녀와 같은 소설</p> <p>나. 마쓰오 바쇼(松尾芭蕉) - 하이카이(하이쿠) : 풍자라는 의미 다. 지카마쓰 몬자에몬(近松門左衛門) - 닌교조루리 * ‘소네자키신주(승根岐心中. 연극 각본)를 발표 : 동반 자살을 소재로 함, 조닌 사회의 모습을 묘사한 세와모노(世話物) 라는 새로운 장르</p> <p>라. 겐로쿠 시대의 문학은, 현세를 ‘우키요(浮き世. 풍속화)’라고 보고, 현실 그 자체를 묘사하려고 하는 초닌들 중에서 생겨났다</p> <p>3. 미술이나 예능의 세계에서도 현실적이면서도 사치스러운 표현이 기조를 이루었다.</p> <p>가. 가부키(歌舞伎) : 노래, 춤 중심 → 극 중심</p> <p>나. 회 화 : 우키요에(浮世繪) * 에시(繪師. 화가)가 그리는 현세의 세태와 풍속도로 미인, 가부키 배우, 스모 선수를 그 대상으로 한 그림으로써 서민들이 좋아함</p>
<p>에도시대 쇼토쿠 정 치</p>	<p>6대 쇼군 도쿠가와 이에노부</p> <p>아라이 하쿠세키 (新井白石)</p>	<p>1. 쇼토쿠(正徳)의 정치</p> <p>가. 쇼군의 선생인 주자학자 아라이 하쿠세키(新井白石)를 신임해 정치쇄신을 기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그는 도쿠가와 쓰나요시의 정치를 계승하여, 조정의 의례를 도입하고 복제와 관위를 비롯한 여러 제도를 정비하여 막부의 권위를 높이는 데 주력하였다.</li> <li>* 화폐를 개주하여 금의 함유량을 높임</li> <li>* 조선통신사에 대한 대우, 예의 절차를 간소화, 쇼군의 칭호를 개칭 [니혼고쿠호(日本國王)]</li> </ul> <p>나. 쓰나요시의 정책 폐지 : ‘쇼루이아와레미노레이(生類憐みの令)’폐지</p>	
<p>에도시대</p>		<p>1. 경제 발전</p> <p>가. 봉건사회의 경제적 기초가 되는 농업은 에도 시대에 들어와 큰 발전을 보았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막부와 각 번은 각지에서 관개 시설을 정비하고 새로운 경작지를 개간(新田의 개발)하였다.</li> <li>* 농업기술도 크게 발전하였고 (탈곡기, 답차, 비료), 상품 작물(고구마, 감자, 옥수수)도 증가함</li> </ul> <p>나. 수공업의 발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업과 연계된 농촌 가내공업, 도시 수공업, 전통 종이(와시(和紙))</li> <li>* 도자기 기술 보급 : 조선의 기술 보급, 히젠의 아리타, 오와리의 세토, 미노의 디지미 등</li> </ul>	

	<p>다. 교통의 정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에도시슈쿠 : 네 곳의 슈쿠바, 수상 교통 → 전국 물자가 에도와 오사카를 중심으로 집산됨</li> </ul> <p>라. 상업은 주로 도시에서 발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히 다이묘의 거성을 중심으로 형성된 <b>조카마치</b>가 영주 경제의 중심지로 변영하였다.</li> <li>* 상업의 발달은 화폐 수요의 증가를 초래했다 : 게이초금은(慶長金銀. 긴자), 동전 : 화폐는 <b>삼도(三都)</b>와 각 <b>조카마치의 환전상</b>들이 유통을 촉진시켰다.</li> <li>* 도시와 상업이 발달하면서 에도를 중심으로 하는 교통망과 통신망이 정비되었다.</li> <li>* 17세기 말이 되면서 상업과 금융업이 발달하면서 많은 <b>신흥 상인들이 출현</b>하였다 : <b>미쓰이 다카토시의 에치고야(越後屋)</b> → 포목상을 열어 <b>현금 거래와 박리다매</b>로 성공함</li> </ul> <p>2. 삼도의 발전</p> <p>가. <b>조카마치, 미나토마치, 슈쿠바마치, 몬젠마치</b> 등 특색있는 도시가 생겨남</p> <p>나. <b>에도, 오사카, 교토 3도(三都)</b>가 번영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에도</b> : 2/3가 부케야시키(武家屋敷. 무사)인 <b>정치 도시</b></li> <li>* <b>오사카</b> : 천하의 부역, 전국적인 상업과 경제의 중심지. 많은 다이묘가 구라야시키(창고)를 둠</li> <li>* <b>교토</b> : 천년의 <b>古都</b>. <b>문화의 중심지</b>, 공예품 산지(니시진오리)</li> </ul> <p>다. 막부는 조정의 권위를 이용하여 전국의 사찰과 종교를 지배하기 위해 <b>교토를 중시</b>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토 쇼시다이, 교토 마치부교를 두고 <b>조정, 공가, 사사와의 관계를 유지</b></li> <li>* 기나이와 주변의 여러 지방을 지배하게 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용 화가 : 스미요시 조케이, 구케이 부자, <b>오카다 고린</b> (린파. 장식 화법, 공예품)</li> </ul> <p>4. 유학(儒學)의 장려</p> <p>가. 주자학의 발달 : <b>하야시 라잔(林羅山)</b>, 기노시타 준안(木下順庵) → 봉건 사회의 <b>정치 이념</b>, 상하의 질서를 존중함</p> <p>나. <b>양명학</b> : 나가에 도주와 그의 제자 <b>구마자자와 반잔(熊澤番山)</b> → <b>지행합일을 중시</b>함</p> <p>다. <b>古學派</b> : <b>공자, 맹자</b>의 <b>古典</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야마가 쇼코, 이토 진사이, <b>오규 소라이</b> → 유학의 진리 파악</li> </ul> <p>5. 학문의 발전 : 실증을 중시한 <b>고전연구와 자연과학</b></p> <p>가. <b>아라이 하쿠세키</b> : <b>도쿠시요론(讀史余論)</b>을 저술하고, 역사 관점을 전개</p> <p>나. <b>자연과학</b> : 본초학, 농학, 의학 등 실용적인 학문이 발달함. <b>야마다 혼조(大和本草)</b>, <b>農業全書</b> 등</p> <p>다. <b>와산(和算)</b> : 측량과 상매거래에 필요함 → <b>筆算代數式</b>, 계산법과 원주를 연구</p> <p>라. 천문, 역학 : 일본 독자의 달력 (누가와 하루미) : 막부의 덴몬가타(天文方)에 임명됨</p> <p>마. 국문학 연구의 시작 : 고전 (겐지노 모노카타리, 마쿠라 노소시) 연구는 후에 <b>국학</b>으로 성장하게 됨</p>
	<p>●<b>막부 정치의 개혁</b></p> <p>1. 무사의 궁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8세기 들어오면서 막번 체제는 붕괴되는 양상을 보여 주기 시작하였다 : 막부 재정의 적자 전환 → 무사 계급의 경제적 궁핍으로 지배자로서의 자각도 점점 상실되어 감</li> <li>* 도시 무사들의 소비 생활의 지출 증가로 상인들로부터 빚을 얻게 됨</li> </ul> <p>2. 농촌의 변화</p> <p>가. <b>화폐 경제의 확산</b> → 농촌의 계층 분화 → <b>농촌의 황폐</b>의 순서로 전개됨</p> <p>나. 화폐 경제의 확산으로 <b>가난한 농부와 부유한 농민 계층</b>으로 나뉘어짐 : 마을 제도 유지 곤란</p> <p>다. 과도한 연공 수취, 기근과 흉작 등으로 경작지를 고리대금업자에게 넘기고 <b>소작인으로 전락</b> : 18세기 초 <b>교호 대기근</b>이 발생함</p>	<p>6. 교육기관</p> <p>가. <b>번교(藩校)</b> 설립 : 오카야마번을 시작으로 설립 → 사무라이에 대한 교육</p> <p>나. <b>데라코야(寺子屋)</b> 간누시, 로닌 지주 등이 <b>주쿠(塾)</b>를 열고, 서민들의 자제에게 읽기, 쓰기, 주산을 가르침</p> <p>7. 민중의 생활</p> <p>가. <b>목면 의복</b> : 고소데(小袖)가 유행</p> <p>나. 하루 세 끼 식사가 보급되고 쌀이 주식이 됨</p> <p>다. 조년의 대부분은 나가야(長屋)에서 생활함</p> <p>라. 연중행사 : 조니, 히나마쓰리의 히나 인형, 고이노보리 등</p> <p>마. 민중의 오락 : 먼 곳의 신사, 사찰 참배, 마쓰리 때에 스모를 바치든지 사람들과 함께 춤을 춤</p>

<p>에도시대 교호개혁</p>	<p>8대 쇼군 도쿠가와 요시무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교호 개혁</b> : 19년 동안 재직하면서 이에아스 시대를 모델로 삼아 막정 개혁에 몰두하였다.</li> <li>1. 주요 정책 : <u>촉근 정치 지양</u> (쇼바요닌 폐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예를 장려,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권장함</li> <li>* <b>다시카가 제도(足高)</b> (유능한 인재를 등용하기 위한 시행 → 마치부교로 오카 다다스케를 발탁)</li> <li>* 구지가타오사다메가키 (公事方御定書 : 증가하는 재판에 대한 조치)</li> <li>* <b>메야스바코</b> (目安箱. 투서함)를 설치 : 施政의 참고 의견, 사회 사정의 목적으로 투서함 설치</li> </ul> </li> <li>2. <u>막부 재정 여건의 개선</u> → 막령의 石高가 1할 이상 증가, 연공 수입 증가로 <b>재정이 다소 회복</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정면법, 아게마이 제도</b> (산킨고타이 체제 기간을 절반으로 줄여 주는 대신 쌀을 헌상케 함)</li> </ul> </li> <li>3. 산업 진흥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새로운 경작지를 개발에 주력하고 고구마 재배를 연구케 함</li> <li>* <b>가부나카마 (株仲間)</b>를 허가하여 상업을 권장함</li> <li>* 서양 서적을 수입하도록 하여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게 함 → <u>蘭學</u>이 본격적으로 시작</li> <li>* <u>쌀값 인상으로 막부의 재정 안정 시도</u> : 오사카 도지마 쌀시장 공인 → <b>고메쿠보(米公方) 쇼군</b></li> </ul> </li> </ul>
<p>에도시대 다누마 시대</p>	<p>9대 쇼군 도쿠가와 이에시게  다누마 오키쓰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다누마 시대</b> : 18세기 후반 → 9대 이에시게, 10대 쇼군 이에하루는 무기력한 쇼군</li> <li>1. 요시무네 이후, 쇼바요닌에서 로주(老中)가 된 <b>다누마 오키쓰구</b>가 십수 년간에 걸쳐 실권 장악 농촌과 도시의 변화, 막부의 재정적 위기, 잇키의 발생, 조정과 막부 간의 긴장관계, 서양의 통상 요구 등으로 위기를 맞음</li> <li>2. <b>다누마 오키쓰구</b>는 매우 현실적인 정치가였다. <b>오키쓰구의 정책</b>은 <u>상인의 힘을 이용하면서, 막부재정을 과감히 개선하려고 하는 것이고,</u> 이에 자극을 받아 <u>민간의 학문·문화·예술이 다양한 발전을 이룸</u>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와 농촌의 상공인들의 조합을 동업조합으로 널리 공인함 : 영업세의 증수를 지향</li> <li>* 금을 중심으로 하는 화폐제도의 일원화 시도</li> <li>* 경작지 개발 : 오사카 상인의 힘을 빌려 대규모 간척 사업</li> <li>* <u>에조치의 개발과 러시아인과의 교역 가능성 조사</u></li> <li>* 모가미 도쿠나이(最上徳内)를 에조치에 파견</li> <li>* 홋카이도의 풍부한 해상 자원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li> </ul> </li> <li>3.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막부의 관리인 사이에 <u>뇌물이나 연줄로 인한 인사(人事)가 횡행하는 등, 무사 본래의 사풍(士風)을 퇴폐시켰다는 비판이 강했다.</u></li> <li>4. <b>잇키와 우치코와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덴메이의 기근</b>(1783년 아사마산의 폭발로 인함)이 시작되고, <b>하쿠쇼잇키</b> (연공 경감, 부정한 관리 교체)와 <b>우치코와시</b>(쌀 가게와 대상인 습격)가 전국에서 빈번하게 일어난 가운데, 1784년 오키쓰구의 아들인 와카도시요리의 다누마 오키토모가 에도성 내에서 살해당했다.</li> <li>* 오키쓰구의 세력은 급속하게 후퇴하였고, 1786년 쇼군 도쿠가와 이에하루가 사거하자, <b>다누마 오키쓰구</b>를 파면하고 대부분의 정책들도 중지되었다.</li> </ul> </li> </ul>

<p style="text-align: center;">간세이 개혁</p>	<p>11대 쇼군 도쿠가와 이에나리</p> <p>마쓰다이라 사다노부 (松平定信)</p>	<p>● <b>간세이 개혁</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라카와 번주인 <b>마쓰다이라 사다노부</b>가 로주에 임명됨 : 다누마와 대조적인 성격</li> <li><u>다누마 시대의 정책을 개선하고 재정 기반을 복구, 土風을 바로잡아 막부의 권위를 재건하고자 함</u>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촌 부흥(농촌의 내실화), 식목, 개간의 장려, <b>오사메야도(納の宿)</b>, 연공미 운송업자) 조직 해체</li> <li>임금 노동자의 귀향, 경지 복구를 위한 공금 대부, 상품 작물 재배와 가내 수공업 제한</li> <li>도시 정책 : 귀향령, 치안 대책(이시카와지마에 닌소쿠요세바를 설치, 노숙자 관리), 철부적금,</li> <li>하타모토, 고케닌 구제 : 기엔레이(棄捐令, 다이묘, 하타모토의 검약을 요구, 후다다시(급료인 쌀을 현금으로 바꾸어 주는 상인)에게 빌려준 돈을 포기하게 함</li> </ul> </li> <li>사상측면 : <b>간세이 이학의 금지(寬政異學の禁)</b> 주자학을 정학으로 하여 1790년에 유시마 세이도(湯島聖堂)에서 주자학 이외의 강의, 연구 금지</li> <li>시라카와 번주인 마쓰다이라 사다노부가 6년여 만에 로주직(老中職)에서 물러난 후, 쇼군인 <b>도쿠가와 이에나리(德川家齊)</b>가 19세기 초의 정치를 직접 관장하였다.</li> <li>개혁에 대한 반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엄정한 통제와 검약령에 대한 민준의 반발</li> <li><u>존호일건(尊號一件)</u> : 고카쿠 천황의 아버지에게 태상천황이라는 칭호를 부여하고 싶다는 요청을 거부함 → 이에 대한 쇼군과 로주의 대립을 원인으로 사다로부를 퇴진시킴</li> <li><u>尊王論</u>이 고조되면서 천왕의 권위가 막부 말기로 가면서 부각되기 시작함</li> </ul> </li> </ol>	
<p style="text-align: center;">에도시대 분 카 분세이 시대</p>	<p>11대쇼군 도쿠가와 이에나리</p>	<p>● <b>열강의 접근</b></p> <p>가. 영국 시민혁명 (17세기 중엽), 미국 독립전쟁 (18세기 말), 프랑스 혁명, 러시아의 동쪽 진출 나. <u>러시아와의 접촉</u> : 1792년 락스만, 1804년 레자노프가 나가사키에 올 : 통상을 거절함 다. <u>영국 군함의 침입 (페톤호 사건)</u> : 막부는 에도만을 방어할 것을 명령함</p> <p>라. 일본의 대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이고쿠센우치하라이레이(異国船打拂令, 1825년)</u> : 외국 선박을 격퇴토록 함</li> <li>* 미국의 모리슨호가 일본인 표류민의 송환과 무역개시를 교섭하기 위하여 내항 : 이를 격퇴함 : 모리슨호 사건에 대하여 오다나베 카잔(신기론)과 다카노 조에이가 막부의 대외 정책을 비판함 → 막부는 이들을 엄벌하였다 (<u>반샤노코쿠(蛮社の獄)</u>)</li> </ul> <p>● <b>분카, 분세이 시대</b></p> <p>가. 마쓰다이라 사다노부가 6년 여만에 로주직에서 물러난 후, 쇼군인 <b>도쿠가와 이에나리</b>가 1837년부터 50년 간의 정치를 직접 관장하였다 : <u>오코쇼(大御所)로서 정권을 장악함</u></p> <p>나. <u>분카 연간까지는 간세이 개혁의 검소 검약이 계속되다가, 분세이 연간에는 호화로운 생활을 하며, 정치에 무관심함</u> : 정치는 부패하고 치안도 문란 → 재정난 극복 대책이 부재, 임시방편 위기 타개</p>	<p>● <b>가세이(化政) 문화</b> : 분카, 분세이 시대(에도 후기)의 문화</p> <p>가. <u>에도 시대 후기의 문화</u>로 에도의 번영을 배경으로 도시 생활자 활력과 함께 확산됨</p> <p>나. <u>에도가 가미가타와 견줄 수 있는 전국 경제의 중심지로 발전함을 배경으로 확산됨</u> : 풍자와 익살을 주요 테마로 하는 <u>조닌 문화의 최전성기</u></p> <p>다. 도시의 번영, 상인과 문인의 전국적인 교류, 출판과 교육의 보급, 사사의 참배 등으로 <u>중앙의 문화가 각지로 전파됨</u> → 문화 내용의 다양화</p> <p>● <b>가세이(化政) 문학과 미술</b></p> <p>가. <b>가세이 문학</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샤레본(洒落本)</u> : 에도의 유곽을 묘사 → <u>산토 교덴(山東京伝)</u> : 유흥가 남녀의 인간상</li> <li>* <u>기보시(黄表紙)</u> : 날카로운 풍자를 담은 그림이 포함된 소설</li> <li>* <u>구사조시(草雙紙)</u> : 해학적이며 기발한 대화 중심의 삽화</li> <li>* <u>곶케이본</u> : 해학과 유머로 서민 생활을 생생하게 묘사. 대표 작가는 시키테이 산바, 짓펜샤이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폐의 대량 유통, 물가가 상승 : 막부 재정 윤택, 상인의 경제 활동 활발 → <u>서민 문화의 꽃</u></li> <li>* 호농과 지주세력 증대, 토지를 잃은 백성의 증가 : 농촌에서 무숙자, 노름꾼으로 치안 불안</li> </ul> <p>다. 사회는 다시 다누마 시대처럼 혼란스러워져 각지에서 민중 폭동이 일어났다. 19세기 중반 사회 분위기 험악해짐 : 흉작 지속, 농촌의 아사자 증가. 농민 반란, 도시 폭동 증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요미혼(讀本) : 문장 주체의 소설로 역사와 전설을 제재로 함 → 우에다 아키나라, 교쿠테이 바킨</li> <li>* 닌조본 (人情本) : 연애를 다룬 소설로 대표적인 작가인 다메나가 슌스이는 덴포개혁 때 처벌됨</li> <li>* 하이카이 : 부손이 회화에 묘사할 만한 시, 잇사가 농촌의 생활 감정을 묘사함</li> </ul>
<p>에도시대</p> <p>덴 포 개혁</p>	<p>12대쇼군 이에요시</p> <p>미즈노 다다쿠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덴포 개혁</b> : 제12대 쇼군 이에요시</li> <li>1. <b>덴포의 대기근</b> : 1823년~1833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극심한 흉작의 계속으로 도시와 농촌에 빈궁한 사람이 넘쳐 하쿠쇼잇키, 우치코와시 발생 빈번</li> <li>* 경제 선진 지역인 <u>기나이 조차 미곡 부족 현상 발생</u> → 오사가 마치부교는 빈민구제책을 취하지 않고 미곡을 에도로 송출하려고 함</li> </ul> </li> <li>2. <b>오시오의 난(1837년)</b> : <u>오시오 헤이하치로(大塩平八助)</u> → 막부의 커다란 충격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전직 막부의 관리가 막부에 반항한 최초의 사건</li> <li>② 막부의 직항지인 오사카에서 발생함</li> <li>③ 오사카 주변의 인농, 천민 등 많은 사람이 참가함</li> </ol> </li> <li>3. 막부는 재정난과 지배 체제를 뒤흔드는 내외외환에 대비하기 위하여 이에나리가 죽은 뒤, 로주 <u>미즈노 다다쿠니</u>를 중심으로 막부 권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b>덴포개혁</b>을 시작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혁은 실패로 돌아가 다시 막부 권력이 쇠퇴하였음을 드러내고 말았다</li> <li>* <b>히토카에시레이</b> : 에도와 오사카에 유입된 농민을 강제로 귀농시키는 명령</li> <li>* <b>물가 안정 대책</b> : 동업 조합인 가부나카마를 해산 → 에도로 들어오는 상품량의 감소로 역효과</li> <li>* <b>아게치레이</b> : 에도와 오사카 주변의 다이묘령과 하타모토의 토지를 막부의 직할령으로 편입 하고자 하는 명령 → 반대로 실시하지 못하고 다다쿠니도 실각함</li> </ul> </li> <li>● <b>웅변의 발생</b>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막부는 위기를 타개하기 위하여 <u>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했지만,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중도에 좌절하면서 지도력을 상실하고 있었다.</u></li> <li>나. 그런데 막부만이 아니라 각 번도 정치,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위기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난관을 헤쳐 나가고자 하였다.</li> </ol> <p>다. 각 번에서는 중, 하급 무사들 중에서 유능한 인재를 등용하여 재정을 재건하고 번의 권력 강화를 지향하는 <u>번정 개혁을 진행하였다.</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사쓰마번의 개혁</b> : 하급 무사 <u>즈쇼 히로사토(調所広郷)</u>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막대한 부채를 탕감하고, 특산물인 <b>흑설탕의 전매를 강화</b>하고, 류큐 왕국과의 무역을 증대</li> <li>- 반사로 축조, 조선소와 유리 제조소 건립, 방직공장 건립, 서양식 무기를 매입, 군사력을 강화</li> </ul> </li> </ul> </li> </ul>	<p>나. <b>가세이 미술</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간세이期 : 인물화 → 기타가와 우타마로의 미인화. 도슈사이 사라쿠의 인물화</li> <li>* 덴포期 : 우타가와 히로시게의 그림(민중들의 여행) → 유럽 인상파 영향</li> <li>* <b>회화</b>는 서민들이 특히 좋아했던 <b>우키요에</b>를 들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8세기 중반에 나타난 <b>스즈키 하루노부</b>는 <u>니시키에라고 부르는 다색으로 찍어 내는 우키요에 판화</u>를 제작해 <b>우키요에의 황금 시대</b>를 열었다.</li> </ul> </li> <li>* <b>문인화</b> : 명, 청나라의 영향 → 이케노 다이가, 부손, 다노무라 지쿠덴, 다니 분초, 와타나베 가잔</li> <li>* <b>서양화</b> 유화 작품 : 난학의 융성으로 유화의 물감이 전래됨 → 히라가 겐나이, 시바 코간, 아오도 덴젠</li> <li>* 시바 코간의 동판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국학과 양학</b></li> <li>가. <b>국학의 발달</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가다노 아즈마마로, 가모노 마부치</b>는 <u>고대사상을 추구하여 양학과 유교, 불교 등 외래사상 배척</u></li> <li>* <b>히라타 아쓰타네</b>는 복고신도를 열어 유교와 불교를 강하게 배척함</li> </ul> </li> <li>나. <b>양학의 발달</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쇄국 정책으로 인하여 <u>서양의 학술과 지식을 연구하는 것은 어려운 일</u>이었음</li> <li>* <b>세계의 지리, 물산, 민속의 기록</b> : 니시가와 조겐, 이라리 하쿠세키</li> </ul> </li> </ul>

- \* **하기번(萩藩, 조슈(長州))** : 무라타 세이후(村田清風)
  - 거액의 부채를 정리하고 종이와 납의 전매제도를 개혁
  - 각 번의 운송선을 상대로 위탁 판매 등으로 수익을 올려 재정 재건에 성공함
- \* **사가번(佐賀, 肥前)** : 번주 나베시마 나오사마(化島直正)
  - 균전제 실시로 혼바쿠쇼 체제를 재건
  - 도자기 전매를 실시, 반사로를 갖춘 대포 제조소를 설립하여 군사공업도입
- \* **도사번(土佐)** : 오코제구미 → 지출을 줄여 재정의 재건에 노력함

라. **웅번(雄藩)** :

서쪽 지방의 번으로서 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행동을 취해 막부 말기에 강한 발언력을 가짐

마. 막부의 개혁

에가와 타라자에몬(江川 太郎左衛門)에게 명하여 반사로 축조, 제철소 건립 : 관영공업의 모범

● **유학과 교육**

- 가. 유학의 발달로 여러 지역에서 공·사립 교육 기관이 설치되었고, 문화 보급의 커다란 요인이 됨
- \* 간세이 개혁에서 주자학을 정학으로 삼고 쇼헤이자가카문조(昌平坂學問所) 설치
  - \* 18세기 서민 문화의 수준이 향상됨 : 공, 사립 교육 기관 설치 : 문화 보급의 커다란 요인
  - \* 사무라이 자제들을 위한 藩校를 설립하여 인재 양성에 노력 : 260여 개교

나. 민간에서의 노력

- \* 무사, 학자, 조닌이 私塾을 열고 유학, 국학, 양학을 강의 : 오사카의 가이토쿠도(懷德堂)
- \* 간기엔(咸宜園), 쇼카손주쿠(松下村塾, 이토 히로부미 배출) : 말기의 사상가와 지사를 배출

다. **데라코야 설립**

- \* 서민의 자제들을 위한 기초 교육 시설 : 일기, 쓰기, 주판 등 생활에 도움이 되는 교육과 도덕
- \* 여성에 대한 교육 진행 : 여자 선생님도 있었음

라. 心學의 발현 : 18세기 초 교토의 이시다 바이칸(石田梅岩)

- \* 유교적인 도덕에 불교나 신도의 가르침을 가미한 생활윤리
- \* 서민의 교육은 출판의 성행에 힘입어 도시를 중심으로 농촌으로 확대됨 → 초등교육

● **정치, 사회사상의 발달**

가. **학문과 사상 분야**에서는 막번 체제의 동요라고 하는 현실을 직시하고, “이를 어떻게 극복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비판적인 의견이 생겨났고 낡은 체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움직임이 되어 나타났다.

- \* 쇼군 도쿠가와 요시무네는 서양책의 수입 제한을 완화하여 네덜란드어를 배우게 함
  - : 아오키 곤요, 노로 겐조 → 蘭學으로 발전함
- \* **의학** : 1774년 **마에노 료타쿠**, **스기타 겐파쿠** 등이 서양 의학의 해부서를 번역 → 가이타이신쇼(解體新書)
- \* **하루마와게(ハルマ和解)** : 네덜란드어와 일본어 사전 → 이나무라 산파쿠

\* **물리학** : 히라가 겐나이

\* **막부는 18세기 중엽에 덴몬가타(天文方)를** 둬

: 천문. 測地, 서양 서적 번역  
→ 이노 다다다카에게 전국 연안 지역을 측량하게 하여 ‘대일본 연해 여지진도’를 작성함

\* **민간의 난학 연구**

: 地動說 소개, 나가사키에 진료소, 나루카키주쿠(鳴암塾) 開所. 오사카에 데키주쿠(適塾)를 열어 인재를 육성함

\* 그 뒤로 양학 연구는 규제로 인하여 의학, 병학, 지리학으로 서의 성격을 강화시켜 갔음

● **생활과 신앙**

가. **도시문화** : 서민의 교류와 오락의 장

- \* 시바이고야(芝居小屋, 가부키 흥행극장), 미세모노고야 (見世物小屋, 곡예, 요술 흥행장)
- \* 요세(寄席, 고단, 라쿠고, 교쿠게이 등을 연기). 공중 목욕탕, 이발소

나. **절과 신사**

- \* 건물의 수리비용, 경영에 필요한 비용을 확보하기 위한 엔니치, 가이초, 도미쓰키를 개최함
- \* **신사 또는 사원 참배** : 이세 신궁(お蔭參り), 겐코지, 곤피로구 등

다. **행사, 모임 등**

- \* 고세쿠(五節句), 히간에(彼岸會), 우라본에(盂蘭盆會)등의 행사
- \* 히마치(日待), 쓰키마치(月待), 고신코(강申構) 등의 모임
- \* 사루마와시(猿廻し), 만자이(万歳) 등 농촌 방문
- \* 맹인인 고제와 자토의 노래



나. 쇄국정책과 제반 사회제도에 대한 비판

- \* 18C초 오규 소라이 : 도시 팽창의 폐해, 무사를 농촌에 토착시킬 것을 주장
- \* 다자이 균다이 : 상업 자본의 적극적 이용, 무사들의 상업 활동 참가로 전매제도를 통한 이익
- \* 존왕론 : 尊王思想은 미토가쿠(水戸学)에서 주장함 → 막부를 부정하지 않고 조정을 존중함
- \* 복고주의. 미토가쿠, 극우 성향의 국학자들조차도 이 한계를 타파하지 못함

다. 외세에 대한 반응

- \* 혼다 도시아키 : 서양의 여러 정세를 설명, 적극적인 무역할 필요성을 역설함
- \* 사토 노부히로 : 산업의 국영화와 무역의 진흥. 막부의 쇄국정책을 비판
- \* 사쿠마 쇼잔 : 선제하여 서양의 학문, 기술을 도입할 것을 주장 → 동양의 도덕, 서양의 기술

라. 봉건 사회의 비판

- \* 안도 쇼에키 : 18세기 전반에 시젠신에이도(自然真營道)에서 만인이 평등하게 경작하는 자연 세계 → 신분제도를 부정함
- \* 도미나가 나카모토 : 기서의 종교와 학문의 권위에 대하여 의문을 가짐

## 근현대편 : 근대 국가의 성립 → 에도 막부의 멸망과 메이지 유신

### 1. 개국과 통상조약의 체결

- ① 산업혁명의 여파 ; 서양 열강이 시장과 식민지 획득에 본격화 → 아시아, 아프리카 지역의 최대의 시련
- ② 청나라의 패배 ; 아편전쟁과 중국 시장 공략 과정에서 청나라의 패배
- ③ 미국의 태평양 진출 ; 중국 시장을 겨냥한 태평양 직항로 개발에 관심, 중간 기착지로서 일본의 개국이 필요

### 나. 페리의 등장과 일본의 개국

- \* 1854년 1월 **미.일 화친조약** 체결 → 통상조약에서 불평등 조약을 체결하게 되는 단서
- \* 1856년 일본에 부임한 총영사 해리스가 통상조약의 체결을 강요함  
攘夷의 분위기로 천황의 조정이 칙허를 거부함 → 1858년 막부는 조정의 칙허를 받지 않고 조인 (**미일통상조약**)
- \* **안세이(安政)조약** 체결 : 네덜란드, 러시아, 영국, 프랑스와도 유사한 조약을 체결함
- \* 서구 열강보다 뒤처진 2등 국가로 전락하고 조선은 18년후 조약체제상 3등 국가로 전락하게 됨  
→ 국제법 무지와 외교적 미숙함

### 2. 국내 정국의 변화

- 가. 개국 후 밖으로는 서양 열강의 외압이 거세지고 안으로는 막부의 권위가 추락하여 정치·사회 전반에 유례 없는 동요와 혼란이 일어났다. 한 마디로 체제의 말기적 현상이었다.
- 나. 에도 막부의 250년간 정치 관행이 흔들림 : **천황과 조정의 조연 요구, 도자마 다이묘의 정치 해금**
- 다. **막부의 독재정치의 붕괴**
  - \* 난키파의 승리로 보수파인 **이이 나오키(井伊直弼)**가 다이묘에 취임
  - \* **안세이(安政)의 대옥(大獄)**  
막부의 독자적으로 미.일 통상조약을 체결하고 반대파인 히토쓰바시파를 비롯한 **교토의 조정과 도자마 다이묘들의** 가신 세력을 처벌. 탄압
  - \* **사쿠라다문 밖의 변(櫻田門)** (안세이 대옥의 반발로 하급무사들이 탈변하여 이이 나오키를 암살)

### 3. 개항의 영향

- 가. **구미 무역의 개시** : 1859년 요코하마, 나가사키, 하코다테의 개항장에서 시작  
→ 교역에 대한 반감과 불안 심리는 **양이운동의 주요원인**으로 대두됨
- 나. 양이운동의 움직임
  - \* **나마무기(生麥) 사건 (1862)**. 영국인을 사쓰마번의 무사가 살해한 사건,
  - \* **영국 영사관 방화사건 (1862년)**. 조슈번 하급 무사들이 에도 외곽에 건설중인 영사관 방화)

### 4. 공무합체의 움직임과 존왕양이 운동

- 가. **공무합체운동** : 조정과의 융화와 막부 권위의 회복 → 천황의 여동생과 장군 이에모치의 정략 결혼
  - \* 사쓰마번의 실력자인 **시마쓰 히사미쓰**가 에도에 들어가 **막부정치의 개혁을 요구** : 막부가 받아들임
  - \* **문쿠(文久)의 개혁** 1862년.
    - ① 막부와 조정의 정부 조정역 배치
    - ② 산킨고타이제 완화,
    - ③ 도자마번인 사쓰마와 협조 관계 (정치금지 해금)

### 나. 존왕양이 운동

- \* 쇄국정책을 스스로 파기한 막부에 대해 불만이 고조되고, 혼란 속에서 **막부에 저항하는 세력이 서남 지역의 번을 중심으로** 등장하였다.
- \* 조슈번사들은 조정이 막부로 하여금 **양이 실행의 명령**을 내리도록 공작함 ; 막부는 양이의 결행을 명령함
- \* **존왕양이운동 (尊王攘夷運動)** : 존왕론 + 양이론
  - ① **조슈번이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하였고 구미 열강과 조약을 체결하였던 막부는 곤혹스러운 입장임
  - ②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천황을 자신들의 편으로 끌어들이고 **존왕양이론**을 내세워 국민적 공감대로 형성하였다.
  - ③ 이를 계기로 존재조차 생소했던 **천황이 갑자기 정치의 전면**에 부상하면서 정국의 주요 변수로 작용하기 시작함

### 5. 양이의 실패와 토막운동

- 가. **8.18 정변** : 사쓰마번과 아이즈번(막부 온건파)이 **존왕양이파의 중심세력(조슈 세력)인 공경 세력을 교토에서 추방**
  - \* 교토를 무대로 한 정국의 주도권싸움사쓰마번과 막부 온건파 중주세력인 아이즈번이 공무합체 공경파와 천황과 연계하여 교토를 군사적으로 장악함
- 나. **긴문의 변(禁門の變)**  
조슈 세력의 반격은 패배로 끝나고, **조정과 막부와 사쓰마는 제1차 조슈 정벌을 단행하기로 함**

- 다. 제1차 조슈정벌(개전 직전에 조슈번이 항복)과 양이의 실패
  - \* 1863년. **시모노세키 포격사건**과 **나마부기사건의** 책임을 묻기 위한 **영국 해군과 사쓰마 간의 전투(사쓰에이 전쟁)** 가 발생하여 막부는 패배하며 양이의 한계를 느끼고 **일본의 근대국가 건설의 시발점**이 됨
  - \* 양이의 실패는 **막말의 정국을 二分化** 역할을 함
    - ① **영국의 대일 정책의 변화** : 막부의 무능함에 **웅변 연합정권의 탄생이 필요하다고 판단**
    - ② 근대화 개명 정책 : 사쓰마번의 사이고 다카모리, 오쿠보 도시미치가 **타도막부**를 꾀함
    - ③ **프랑스는** 로슈 공사를 중심으로 **막부에 대한 재정 및 군사 원조를** 계속하고 있었음

<p>라. 토막(討幕)운동과 막부의 멸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샛초연합</b> (薩長聯合. 사쓰마번과 조슈번의 하급무사간의 동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슈번에서 혁신파 하급무사들이 번정을 장악, 토막론을 걸고 막부에 무력으로 저항함</li> <li>- 막부는 조규 2차 정벌을 선언하고 강경책으로 선회함 : 공무합체적인 정국운명을 구상</li> <li>- 사쓰마번이 도사번의 <b>사카모토 료마</b>가 중재하여 사쓰마번과 조슈번이 <b>비밀군사동맹</b>을 맺음</li> </ul> </li> <li>* 막부는 제2차 조슈정벌에 나섰으나 사쓰마번은 출병을 거부함</li> <li>: 막부의 조슈정벌은 실패로 돌아가고 <b>막부는 정치적 권위와 군사적 실력 면에서 전국 호령의 능력이 없음</b>이 밝혀짐</li> <li>* 결국 궁지에 몰린 막부는 자신의 모든 권한을 천황에게 반환하겠다는 <b>대정 봉환</b>까지 제안했지만, 저항 세력에 의해 소멸되고 말았다.</li> </ul>	
<p><b>메이지 시 대</b></p> <p><b>● 대정봉환</b></p> <p>가. <b>메이지 천황의 등극</b> (1867년) 천황의 측근 세력은 반막부적인 젊은 혁신파 공경과 사쓰마와 조슈의 하급무사의 연계로 이어짐</p> <p>나. <b>대정봉환의 단행</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867년 10월 마지막 쇼군 요시노부는 쇼군의 권력을 천황에게 되돌리는 형식으로 <b>大政奉還</b>을 단행함 : 천황의 조정은 서남옹변의 토막파와 기맥을 통합</li> <li>* 12월 9일 '<b>왕정복고의 대호령</b>'을 선언 → 천황친정의 복귀와 쇼군의 영지에 대한 몰수와 삭탈관직</li> <li>- <b>5개藩</b> (사쓰마, 도사, 아키, 오와리, 에치젠)</li> </ul> <p>다. <b>메이지 유신의 시작</b> : 서남옹변이 중심이 되어 조정을 이용한 구데타적 상황으로 전개</p> <p><b>● 중앙집권 정부의 성립</b></p> <p>가. 1868년 성립한 새 정부는 <b>보신 전쟁</b>(막부세력과의 1년간의 내전)을 치르면서 일본을 통일하는 데 성공하고, 도료를 수도로 정하고 천황을 도료에 거주하도록 하였다 : <b>공의여론의 존중과 개국화친을 국책의 기본</b></p> <p>나. <b>메이지 정부의 전국 통일</b> : 一世一元, 태정관제 부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새정부의 삼직</b> : 총재, 의정, 참여 * 천황의 5개조 서문 반포 : 민중에게는 '오방의 서문'을 반포.</li> </ul> <p>다. 새 정부는 보다 강력한 중앙집권적 국가를 만들기 위해 과거의 제도를 과감히 개혁하였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판적봉환과 폐번치현</b> 등의 조치</li> <li>* 실제 정권은 소수의 혁신파 공경과 4개 번의 실력자들이 장악 : 자기 세력만으로 권력의 독점을 제한 → <b>변별정권</b>이라는 비난을 받음</li> </ul> <p>라. 이러한 개혁을 통하여 다이묘, 번주들은 과거의 특권과 지위를 상실하고 말았다. 또 과거의 신분제가 폐지되고 새롭게 <b>화족, 사족, 평민</b> 신분이 생겨났다 (<b>사민평등</b>)</p> <p>마. 징병령, 서양식 장비를 갖추어 훈련을 시작 : 사족 반란의 절정 시기의 <b>세이난 전쟁</b>에서 사족들을 제압</p> <p>바. 지조개정과 질록처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지조개정</b> (地組改正)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과세 표준을 지가로 함</li> <li>② 물납을 금납으로 고치고 세율은 지가의 3%</li> <li>③ 토지 소유자의 세금 납부</li> </o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 번의 부채를 국가가 떠 맡음 : <b>토지 제도와 세제 개혁</b>이 개혁정책의 급선무</li> <li>- <b>토지 사유화 정책</b> : 토지자유매매금지령의 해제, <b>지권의 발행</b>, 경작권자에게 토지 소유권을 부여</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주와 자작농 등 토지소유자가 등장 → 감세를 원하던 농민들의 반발, 빈부 격차의 증대, 하층 농민의 소작농화 등 <b>사회구조적 문제점</b></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질록처분</b> (秩祿處分) : 가록에 해당하는 금액을 채권으로 청산함</li> <li>- 1876년 화족과 사족에 대한 <b>녹봉의 특권을 폐지</b>함 : 중, 하급 사족의 몰락 → 관리, 경찰관, 교원 전환</li> <li>- 평민과 사족의 구분의 불식, 무사계층의 불만 증폭</li> <li>- 새 정부는 질록처분을 단행하여 다이묘와 사족들에 대한 연봉의 부담을 일시에 해소하였다.</li> </ul> <p><b>● 메이지 초기의 경제정책 : 식산흥업</b></p> <p>가. <b>부국강병정책, 식산흥업정책</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식산흥업정책</b> : 구미의 신산업을 이식하고 <b>상업과 산업의 부흥</b>을 정부가 주도하는 경제체제를 형성</li> <li>* 1870년 설치된 工部省은 <b>철도 부설에 착수</b>하여 개항장과 대도시를 연결</li> <li>* <b>산업의 근대화, 군비의 근대화</b>, 근대적 우편제도, 근대적 화폐제도, 무역 수지의 개선</li> </ul> <p>나. <b>홋카이도의 개척</b> : 1869년 홋카이도 개척사 : 10년간 소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이누족의 동화정책, 불평 사족과 평민의 이민의 장려 (둔전병 제도)</li> </ul>

메이지  
유 신

● **문명개화와 복고**

가. **학교의 설립** ; 공립의 향학 설립, 이와쿠라 사절단의 학교 교육과 징병제를 중시한 보고서

나. **종교정책**

- \* **신도의 국교화** : 廢佛毀釋 운동, 이세신궁을 정점으로 국가 신도의 제도가 확립됨
- \* 기독교인 금지 정책 계승 : 우라카미구즈레(浦上崩れ) 사건, 그리스탄 금지의 조항을 삭제
- \* 개신교도 전파되어 외국인 교사의 영향으로 청년들이 기독교 신앙을 가지게 되었다

다. **문명개화** : 서양의 근대 사상과 문명 생활 양식의 유입을 시작 → 국민의 사상 전환

- \* 천부 인권사상 주창 (나카에 초민), ‘서양사정’, 학문의 권유’ 등의 저술과 강연 (후쿠자와 유키치)
- \* 신문. 잡지의 발간 : 메이로쿠샤(明六師)를 설치하여 메이로쿠 잡시를 발행

● **메이지 초기의 대외 관계**

가. **국경의 확정**

- \* 오가사와라 제도(小笠原諸島)가 일본령이라는 사실을 재선언
- \* 1875년 **가라후토 - 지시마 교환조약** : 지시마 열도 전체를 일본령, 가라후토를 러시아령
- \* 류큐 처분 : 사쓰마번의 지배를 받던 류큐 왕국을 타이완에 출병하여 류큐가 일본령임을 알림 (1874. 타이완 출병) → 1879년 오키나와현을 설치

나. **메이지 초기의 조·일 관계**

- \* 메이지 정부의 대외적 외교 관계 : 최대의 과제는 막부가 체결한 불평등한 조약 체제의 탈피  
→ 국가 위상을 높이며 근린국가들과의 근대적 조약체결을 희망  
- **정한론** : 국경의 확정과 근린 지역에 대한 정치, 경제적 영향력 확보
- \* 조선과의 관계 개선의 중요성 대두
  - ① 조선은 일본 열도의 안전보장을 위한 안전판으로 판단
  - ② 러시아 수중에 들어가면 일본의 안전에 위협이 되므로 일본의 영향력 아래 두어야 한다
- \* 1876년 **강화도 조약** 체결로 일본의 무력에 의하여 조선이 문호를 개방  
→ 청국과 대등한 조약(청·일 수호조규. 1871년)을 체결하여 조선과의 교섭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함
- \* 조선이 국제 조약 질서에 무지했다는 사실, 이로 인하여 불이익을 당하게 됨  
조약 체결의 자주적 의지가 없었다면 전면전을 하더라도 조약은 체결되지 않았을 것임

● **임오군란(1882)과 갑신정변(1884)**

가. **임오군란** : 1882년

- \* 조선은 구미 각국에도 개국하여 청국, 일본, 미국, 러시아의 세력이 이권을 다투게 되고, 일본으로 금이 유출되어 물가가 폭등하고 재정이 궁핍해짐 : 반일 감정이 고조됨
- \* 일본 군인을 교관으로 한 별기군의 설치와 급여의 체불 등에 대한 불만으로 구식 군대의 병사들이 반란을 일으켜 일본 영사관을 덮친 사건
- \* 청나라의 조정으로 양국의 교섭이 성립됨  
: 청나라의 정치적 영향력이 강화됨

나. **갑신정변** : 1884년

- \* 일본의 근대화 정책의 영향을 받은 김옥균 등 개혁파가 조선의 보수파 정권을 타도하고자 함 → 조선에 주둔한 일본군을 움직였으나 청나라 군대에 패하고 일본으로 망명함
- \* 청국과 일본 사이에 텐진 조약 체결  
: 양국의 군대 철수, 파병 시 사전 통고

다. 1889년 방곡령 사건의 배후에 청국의 영향이 있다고 본 일본 정부가 청국과의 개전을 검토  
→ 청·일 간의 군사적 대립이 깊어짐

헌법제정

★ 자유민권운동의 전개

1. 서양 문화의 도입 : 군사력 강화를 위한 서양 근대 기술의 수용. 병학의 수용 과정

가. 군사력 강화 : 서양 근대 기술의 수용 → 반사로(대표 주조), 총포 제조, 사쓰마번의 공단지역 건설

나. 근대 과학의 학습 : 양학소를 번서조소(藩書調所)로 바꿈 (1856) → 蘭學, 英學을 학습

→ 후에 開城所로 고쳐 어학, 자연과학을 학습 : 의학소와 개성소를 합쳐 도쿄대학을 만들

다. 사상가의 등장

\* 사쿠마 쇼잔 : 서양 과학과 동양의 도덕 사상의 결합을 주장

\* 요코이 쇼난 : 대국을 지양하고 전쟁을 막는 '仁義의 나라'가 되어야 함

\* 계몽 사상가의 등장 : 메이지 유신 이후 메이로쿠사(明六師)를 설치하여 메이로쿠샷시를 발행

: 근대 사상을 소개 → 후쿠자와 유키치(학문의 권장), 니시무라 시게키, 니시 야마나, 모리 아리노리

- 인권이나 입헌정치를 주장하는 자유민권사상에 눈뜬 → 나카무라 마사나오 (자립의 정신 주장)

2. 자유민권운동의 전개 : 참정권의 요구

가. 일본은 1870년대 중반에서 1880년대 초반까지 진행된 자유 민권 운동으로 커다란 정치적 변화를 겪었다.

자유 민권 운동은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표방하고 있었지만 실제로 정한론 논쟁에서 패배하여 정계를

떠난 정치 세력들이 다시 정치에 복귀하기 위해 일으킨 정치 운동의 일환이었다.

나. 이들은 납세자인 국민이 정치에 참여해야 한다는 명분을 앞세워 민선 의원 설립을 요구하였다.

: 사족과 호농의 정치 참여를 주장한 '상류의 민권 운동'

다. 이것이 도화선이 되어 자유민권운동은 전국으로 번져 나갔다. 더욱이 불평 사족들이 일으킨 반정부 무력적

저항(세이난 전쟁, 1877년, 사이고 다카모리)이 실패로 끝나자 자유민권운동에 대한 기대는 더욱 높아졌다.

라. 국회개설의 청원 추진도 정부의 집회조례의 제정으로 억압되고, 정부는 독자적인 헌법을 준비하였다.

마. 메이지 14년의 정변

\* 메이지 유신의 3대 주역(사이고 다카모리, 기도 다카요시, 오쿠보 도시미치)의 사망으로 정치권의 중심이

공백 상태가 되었다 : 자유민권운동이 고양되어 정부 내부에 분열이 발생함

→ 선임 참의인 오쿠마 시게노부(정당 정치와 국회 개설의 승인을 주장) 와 이토 히로부미 의 대립

\* 개혁사 관유물 불하사건으로 정부가 위기에 봉착함

\* 정부는 민권파의 기선을 제압하기 위하여 점진적인 국회 개설과 독일식 군주 헌법 제정 방침을 정하고

오쿠마 시게노부를 사직시킴 : 국회개설의 칙유를 내림

→ 이토 히로부미가 정부의 주도권을 장악함 → 샷쇼연합. 제2세대 지도자 등장

바. 사의 헌법(私疑憲法) : 국회 개설에 대비하여 각지의 正士나 개인들이 다양한 헌법 초안을 만든 것

사. 자유민권운동의 해체

\* 자유당(기성 동맹 중심, 이타가키 다이스케)과 입헌개진당(오쿠마 시게노부, 도시 지식인)의 결성

\* 이타가키의 정부의 뒷돈 수수와 자유당과 입헌개진당의 상호 비난으로 약화됨

\* 후쿠시마 사건 (1882년) : 후쿠시마 현령이 아이즈의 부흥을 위해 현민에게 가혹한 노역과 부담금을 부과

→ 자유당원과 농민이 반대하며 충돌

\* 민권운동의 급진화(오사카 사건)와 정부의 탄압으로 자유민권운동은 쇠퇴하게 됨

① 사족의 반란 : 세이난 전쟁(西南戰爭)

1. 사이고 다카모리 (정한론 논쟁에서 패하여 귀향)를 우두머리로

메이지 정부의 급속한 서구화 정책으로 인한 무사계급의 지위 상실에 불평 사족들이 나타남

2. 1877년 일어난 사족반란으로 전투는 주로 규슈에서 벌어짐

: 8개월 간의 전투로 세이난 전쟁이라고도 함 : 백중세의 전투는 구마모토성 전투에서 정부군이 승리하며 위기를 넘김

→ 평민으로 구성된 군대가 사족의 군대를 이겼다는 사실이

서구화 정책의 정당화 결과로 나타남

3. 패배한 사복들은 중국이나 조선으로 진출하여 대륙낭인이 됨

: 일본의 대륙 침략의 첨병이 됨

① 군인칙유와 군비강화

1. 군인칙유는 1882년 반포되어 충정, 예의, 무용, 신의, 검소의

다섯 가지 덕목을 강조함. 상관의 명령의 천황의 명령이라는 점

을 강조함, 군의 통수권은 제도적으로 내각으로부터 독립됨

2. 1881년 육군은 6개 사단과 군위사단을 편성, 기병 신설, 수송

부대인 치중병을 확충하여 해외 작전 수행능력을 갖추.

징병령을 개정하여 병역의무를 강화함. 청일전쟁 후에는 세계

일류 해군으로 성장

① 교육칙어와 학교

1. 1890년 메이지 헌법에 없었던 교육에 관한 규정으로 '교육에

관한 칙어'가 반포되었다. 충효의 길이 국체의 精華이고 교육

의 근원이라고 정의하며 학교 교육의 기본이 되고 천황을 숭상

하는 습관을 기르는데 일조하게 됨

2. 1903년 국정교과서가 사용되고 교육을 통한 국가의 통제가

강화됨. 또한 제국대학은 국가의 요구에 응해 연구와 교육을

행하고 국가 체제를 지탱하는 관리, 기술자의 양성기관으로서

큰 역할을 함

● 메이지 문화의 특징

서구 자본주의의 유입과 함께 서구 문화도 일본에 들어와,

메이지 시대는 독특한 메이지 문화를 형성하였다.

① 일본 문화의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각 분야에 걸쳐서 급속히

서양의 근대 문화를 수용하였기 때문에 서구 문화에 대한

표면적이고 피상적인 이해가 많았다.

② 근대 문화의 특질로서 과학적 정신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고

헌법제정

\* **오사카 사건** : 구 자유당 오이 겐타로 등이 자금을 모아 조선에 건너가 조선의 보수정권을 전복시키겠다는 계획이 발각, 검거됨. 갑신정변기의 급진개혁파와 자유당의 연관성을 시사함

아. 농민의 자유민권운동

\* **공민당과 차금당의 결성, 지치부(秩父) 사건**(곤진당을 중심으로 지조 경감, 차입금 면제, 징병 반대를 이유로 무장 봉기를 일으킴) → **하류의 민권운동**

\* 1886년부터 자유민권운동이 다시 고양됨 : 삼대사건 건백운동, 자유당원들의 **입헌자유당 결성**

**3. 대일본제국헌법의 제정**

가. 결국 1881년 정부도 민중과 여론의 압력에 굴복하여 10년 뒤에 헌법을 제정하고 국회를 설치할 것을 천황의 이름으로 약속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나. 정부는 국회의 개설에 대비하여 **지방의 자치 제도나 내각 제도 등을 정비**하고, 이토 히로부미를 독일에 파견하여 **일본에 적합한 헌법을 조사**하도록 하였다.

\* 독일의 수상 비스마르크의 조언과 헌법학자의 강의, 군주권이 강한 독일 연방 헌법을 참조하여 헌법과 부속 법령을 기초함 : 헌법 논의는 일반에 공개되지 않은 채로 진행되었음

\* 국민의 정치 참여에 대한 견제 조치

- 1884년 **화족령** : 황실을 지키는 특별한 신분으로 작위의 세습, 재산 보호 → 후에 귀족원을 구성하게 됨
- 1885년 태정관제를 폐지함 : 내각 총리대신(수상)과 국무대신으로 조직된 **내각 제도를 도입**함

\* **천황가의 일본 최대 자산가** : 일본은행의 주식, 국유지 등 구가의 자산을 황실의 명의로 등기

다. **지방자치제의 성립** : 중앙정부의 강력한 통제하에 지방의회는 지방 유지들의 사교장

\* **시제와 시정촌제, 부현제와 군제**를 제정 : 완전한 지방자치제는 아니었다

\* **의원의 선거권** : 지방의 유력자와 대지주를 기초로 함

라. 자유민권운동 측에서도 자유당과 입헌개진당을 만들어 헌법 체제에 대응하였으나 메이지 정부는 헌법과 제도의 개혁에 민간의 의견을 일절 수용하지 않았다 → 1889년 2월 11일 **대일본 제국 헌법**으로서 발표

\* 이 헌법은 주권자인 천황이 만들어 국민에게 내려 준다고 하는 이른바 **흙정헌법(欽定憲法)**이었다.

\* 왕위의 계승, 즉위 등 황실에 관한 것은 **皇室典範** (1889년 제정)으로 정함 : 천황의 일부일체제, 장자계승의 원칙 등이 제도적으로 정비되어 **근대적 천황제의 기본**이 마련

\* **절대적인 군주제와 입헌주의적 군주제가 혼용** : 천황은 군통수권, 선전포고, 조약비준 등의 **외교대권**, 정부조직법인 관제제정권 등의 막강한 권한

\* **긴급칙령권**은 법률과 같은 권한으로 의회없이 국가의 법률적 기능이 기동될 수 있는 구조를 마련 → 정부가 얼마든지 천황의 권위나 명의를 도용하여 합헌적 권력을 행사할 수 있음을 의미함

바. 일본은 이 헌법에 근거하여 1890년 **천황이 임명하는 귀족원과 국민 공선에 의한 중의원**으로 구성되는 **양원제 국회를 개설**하였다 : 중의원의 **입법권의 행사**는 귀족원에 의해 대부분 제한 당함.

→ **예산심의권은 중의원의 권한**으로 정부와 중의원의 대립구도가 점차 커지게 됨

사. 사법권은 행정, 입법으로 독립되어 있었으나 천황에 속해 있고, 행정부의 권한은 의회보다 컸으며, 국무대신은 천황에 대해서만 책임을 짐

아. 국민은 **천황의 臣民**이고, 납세와 병역의 의무를 지지만 국민의 권리나 언론이나 정치 활동, 사회 운동 등을 제한하는 법령

③ 동시에 학문과 예술이 정치, 도덕, 종교로부터 독립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

④ 반면에 서양 문화에 대한 반발로 국수주의적인 일본주의가 강하게 일어난 것도 메이지 문화의 특징이었다.

● **저너리즘과 근대 문학**

가. 저너리즘

- \* 자유민권운동과 아시아 문제, 조약 개정 문제 등이 부각됨
- \* 전국적 **상업신문의 창간** : 아사히 신문, 마이니치 신문
- \* 大新聞 (정치적 주장을 발표하는 것이 중심)과 小新聞 (서민의 오락 제공. 대중 문예 발달에 기여)

나. 문 학

- \* **권선징악적인 기사쿠 문학**이 부활, 정치, 외교 문제와 관련된 **정치 소설**
- \* 사실소설 (소설의 진수. 쓰보우치 쇼요), 언문일치제 (뜯구름. 후타베타이 시메이)
- \* 문단의 주류는 오사키 코요 (곤지키 야샤(金色夜叉)), 청일전쟁 이후에는 로망주의 문학이 성행
- \* 소 설 : 히구치 이치요, 모리 오가이
- \* 신체시(시마자키 도손), 단가(요사노 아키코)
- \* 하이쿠의 혁신을 이룬 마사오카 시키 드이 주목을 받음
- \* 러일전쟁 전후에는 자연주의 문단 : 지식인의 내면생활을 국가 사회와의 관계에서 묘사함 → 나쓰메 소세키의 작품
- \* 사회적 보존과 자아의 문제에 관심을 둔 문학이 나타남
- \* 잡지 출간 : 시라카바(白薔.무샤노코지 사네아쓰), 세이토(靑踏. 히라쓰카라이초)

● **미술, 예능, 과학기술**

가. 도쿄미술학교 : 1887년 **오카쿠라 덴신** → 시작 후 일본미술원을 결성 : 요코하마 다이칸(大觀), 낭만주의 화풍을 만들

나. 서양화 : 프랑스 밝은 화풍 (백마회 조직)

→ 다카하시 유이치, 아사이 추, 구로다 세이키, 아오키 시게루

다. 조 각 : 다카무라 고운(전통 조각 분야), 오기하라 모리에(로댕)

라. 서양음악

도쿄음악학교 설치(1887년), 창가 교육, 군가의 유행(다키 렌타로).

마. 전통 음악의 애호 : 엔카. 나니와부시

청일전쟁

#### 4. 조약 개정의 교섭

##### 가. 조약 개정의 외교

메이지 정부의 가장 중요한 외교 문제는 막말에 체결한 불평등 조약을 평등한 조약으로 개정하는 문제임  
: 관세자주권의 획득 (稅權 회복)과 영사재판권의 철폐 (法權 회복)

##### 나. 조약 개정의 실패와 성공 : 초기에는 치외법권만을 개정 요구하는 전략

조약 개정의 외교 협상은 거듭되는 실패 속에 **고무라 주타로 외상** (1911년) 시기에 조약 만기 교섭에서 **완전한 관세자 주권회복에 성공하여** 구미 열강과 대등한 조약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됨

##### 다. 국가 위상의 격상, 제국주의 침략 국가로 변신하는 것으로 서구 열강의 벤치마킹을 한 것임

#### ㉠ 오쓰(大津)사건

1. 일본을 방문하던 러시아 황태자가 1891년 5월 사가현 오쓰에서 경비를 하던 일본 순사로부터 습격을 당해 부상을 입은 사건으로. 러시아의 사형에 처하도록 하는 요구를 대신원장이 외국의 황족을 일본의 황족으로 간주하여 법률 해석을 할 수 없다고 거부하고, 일반의 모수죄를 적용하여 무기징역에 처함.
2. 치외법권 교섭에 이어 일본 사법부의 독립을 유지한 판례로 칭송을 받음. 그러나 범인이 국민적인 이지메를 당하면서 일가가 멸절하게 되어 일본 사회의 다른 이면을 보게 되었음

#### 5. 청·일 전쟁

가. 일본은 국가 목표인 '부국강병'을 달성하는 방편으로 대륙으로의 팽창을 추구했다. 따라서 일본은 대륙 침략의 발판이 되는 조선을 놓고 점차 청국과 갈등의 도를 더해 갔다.  
→ 결국 일본은 조선에서 일어난 동학농민운동을 빌미로 군대를 파견하고 청국과의 전쟁에 돌입함

##### 나. 청·일 전쟁의 발발

- \* **갑오농민운동의 발발** (1894년 5월. 세금 감면과 일본 배척을 요구하는 동학교도 중심의 대규모 농민봉기)
- \* 청국 군대와 일본군이 대항 출병을 단행함 : 조선의 농민군은 양국의 개입을 우려, 정부와 화해함
- \* 일본군은 단독으로 조선 정부에 내정개혁의 단행을 최후 통첩함
- \* 조선 정부가 거절하자 강제로 내정개혁 단행을 착수함. 청국의 수송선을 공격하여 전쟁이 발발
- \* 전쟁 수행을 위해 거국 일치적인 기민성 : 거액의 전쟁 예산과 법률안을 만장일치로 승인
- \* **大本營**을 도쿄에서 히로시마로 이동 : 황해 해전의 승리, 청국 북양함대의 근거지를 점령함

##### 다. 시모노세키 조약과 삼국 간섭

- \* **시모노세키 조약 성립** (1895년 4월)  
새로운 청, 일 통상항해조약 체결, 사스, 충칭, 쑤저우, 항저우의 개시와 개항, 치외법권의 승인
- \* **청일 전쟁의 효과**
  - 아시아 최초의 식민지 영유 국가로 등장
  - 전쟁비용을 능가하는 전쟁 보상금의 획득 : 군수 산업의 근대화, 산업 혁명의 자금 활용
  - 청국의 위상을 낮추어 중국 분할이 가속화 됨
- \* **러시아와의 전쟁 준비**
  - 러시아는 랴오둥 반도를 독일, 프랑스와 함께 청국에 반환하도록 강하게 압력을 가함 (**삼국의 간섭**)
  - 랴오둥 반도를 반환하고 약 4천5백만 엔의 배상금 : 러시아와의 전쟁을 위한 군비 확장을 추진

#### ● 학문과 교육의 변화

##### 1. 교육과 저널리즘의 발달

- : 학문과 사상 분야의 자유주의적분위기
- \* **신문 부수의 확대**  
: 종합 잡지, 문학전집 (**연포**, 이와나미문고), 대중잡지(킹구)  
→ 이들을 무대로 하는 대중 소설가도 나타남
- \* **도시** : 빌딩과 백화점 등장, 서양식 의식주, 교외의 문화, 주택, 전기, 가스, 수도, 전화  
→ 백화점 점원, 전화 교환수, 버스 안내원 등의 직접여성
- \* **농촌** : 청년단을 중심으로 도시의 자유스러운 분위기를 수용하는 움직임
- \* **각종 미디어** : 도쿄와 오사카에 라디오 방송(1925년)  
→ 뉴스 속보와 표준어 보급
- **외국 사상과 문화가 소개됨** : 마르크스주의가 지식인층에 영향을 미침
- **학문 분야** : 다이쇼 데모크라시의 자유주의 분위기
- \* **천황기관설 (미노베 다쓰기치)**을 주창하여 **천황주권설(우에스키 신기치)**을 비판함
- \* 실증적 고대사 연구(쓰다 소우키치)와 민속학의 야나카기구니오, 서민 생활사 연구(니시다 기타로)
- \* **염료, 약품** 등에 관한 독자적인 연구, 이화학, 항공 연구소, 지진 연구소 설립
- \* **교육** : 글짓기 운동(스즈키 미에키치), 동요 운동(기타할 하쿠슈) 자유 교육운동(시나노)

#### ● 근대 문학의 조류와 예술의 발달

- \* **문 학**
  - 잡지 : 시라카바 → 인도주의 이상주의를 호소함 / 스바루 : 탐미파 → 개성적 미의 세계
  - 잡지 '신사파' : 신현실주의 문학을 창조, 사소설의 양식
  - 프롤레타리아 문학의 성행 : 사회주의 사상과 노동자의 입장  
→ 씨뿌리는 사람, 문예전선

	<p>라. 명성황후 시해사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895년 10월 반일 정군을 수립한 명성황후가 일본인에게 시해 당함 → 일본에 대한 감정이 악화됨</li> <li>* 고종은 일본이 두려워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하여 러시아의 보호를 받음 (俄館播遷)</li> </ul> <p>㉠ 명성황후 시해사건</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조선에서의 내정개혁(갑오경장)을 주도했던 일본의 이노우에 공사가 삼국간섭에 의해 일본의 위상이 저하되어 영향력 행사가 어려워지고 1895년 친러파정권이 성립되었다. 러시아가 일본과의 무력충돌을 일으킬 의향이 없음을 확인하고 대원군을 이용해 친일파정권을 부활시키기 위한 궁중쿠데타를 획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이다</li> <li>3. 일본 정부의 지시 여부는 알 수 없지만 사건의 주범은 일본의 군인, 외무성과 경찰, 외교관, 우익인 현양사 계열의 조선 낭인을 모두 지휘할 수 있었던 인물인 <b>미우라 고로</b>라는 점이다</li> <li>4. 친일 정권 부활을 위한 궁중 쿠데타가 중요 과제이고, 이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고종 및 조선 왕실</b>에게 공포심을 심어주는 방식으로 극단적인 수단이 채택되었다고 볼 수 있다</li> </ol> <p>6. 타이완의 식민지화 ; 타이완 총독부 설치, 식민 정책 실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술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양 화단 : 이과화가 결성되어 문부성 미술전람회에 대항함</li> <li>- 일본화 : 일본미술원이 재흥 : 요코하마 다이칸, 시모무라간잔</li> <li>- 음악 : 오페라 (미우라 다마키), 오케스트라 (야마다 고사쿠)</li> <li>- 연극 : 신극분야에서 예술좌가 생김, 도쿄에 소극장 창립</li> </ul> </li> </ul>
<p>러일전쟁</p>	<p><b>제5부. 근대 일본과 대륙 침략 → 러일전쟁과 한국강점</b></p> <p>1. 러. 일 전쟁</p> <p>가. 중국의 분할과 일본의 선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일 전쟁으로 종이호랑이 신세가 된 중국은 세계열강의 각축장이 되어 가고 있었다.</li> <li>* 랴오둥 반도를 반납하게된 일본은 조선에서의 러시아와의 세력 관계를 고려하여 협조노선을 택함</li> <li>* 이러한 추세를 가속화시킨 사건이 1900년 의화단 세력에 의해 베이징이 포위된 사건이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청명양을 외치는 <b>의화단 사건</b>으로 구미 열강과 선전포고를 하게 됨</li> </ul> </li> <li>* 이에 대하여 서구 열강은 8개국 연합군을 편성하여 베이징에 포위된 외교관들을 구출하였는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합군에 일본도 가담하여 국제 무대에서 열강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얻음</li> </ul> </li> <li>* 하지만 의화단 사건은 혼란의 시작이었을 뿐이었다. 곧 이어 러시아는 만주를 점령하였고, 이에 당황한 일본은 러시아의 남하를 저지하고 싶어 하는 영국을 끌어들여 <b>영·일 동맹</b>을 맺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러시아의 남하 정책 저지 목적 공유</b>, 러일전쟁시 영국은 중립 후 제3국이 러시아 편에 서면 일본 측에 참전하기로 함</li> </ul> </li> </ul> <p>나. 러. 일 전쟁의 과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로써 일본과 러시아의 대립 구도는 더욱 선명하여졌다. 결국 서로의 양보 없이 진행된 러·일 협상 (만주와 한국 문제 해결을 위한 러시아와의 협상)은 무위로 끝남</li> <li>* 일본은 <b>해군의 뤼순 공격과 육군의 인천상륙</b>을 통한 서울 등 주요 지역을 무력 점령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은 무력 강점을 당하고 실질적으로 일본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됨</li> </ul> </li> <li>* 1904년 2월 러·일 전쟁이 일어나 일본은 고전 끝에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러시아 내의 반전 운동 등으로 충분히 전력을 발휘하지 못함</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러일전쟁의 경과</b> : 20세기 전쟁사에서 전, 후방이 없는 총력전의 출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뤼순 요새에 대한 공략 : 11개월 만에 3개 사단 병력의 손실, 태평양 함대 제압</li> <li>- 인천항의 러시아 한 대 기습 후 선전포고 (1904년 2월)</li> <li>- 유럽에서 온 발틱함대를 전멸시킴 (일본해 해전, 1905년 5월)</li> </ul> </li> <li>다. 전시하의 국민 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전과 함께 <b>간선 철도의 군사 수송에 이용</b>, 외항 선박의 수출입 수송 정지, 국내 상품 유통의 막힘</li> <li>* <b>개별 소비세의 증세와 신설</b>되어 도시 중, 하민층의 민중은 심한 생활고를 겪음</li> <li>* 군수품의 영향으로 생필품의 가격이 폭등하고, 농촌에서는 <b>노동력과 비료의 부족</b>으로 농업 생산이 곤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군대 소집, 군마의 사료 공출</li> </ul> </li> <li>* 청일 전쟁과는 다른 엄청난 소모전 양상</li> </ul> </li> <li>라. <b>포츠머스 강화 조약</b> (1905년 9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지만 전쟁 물자가 바닥난 일본으로서는 <b>미국의 중재를 요청</b>하지 않을 수 없었고, 이렇게 해서 배상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한 채 <b>포츠머스 강화 조약</b>을 맺어야만 했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러시아는 <b>한국에 대한 일본의 지도, 보호, 감리권</b>을 인정</li> <li>② 뤼순, 다렌의 조차권과 장춘 이암의 남만주 철도와 그 부속된 권리를 양도</li> </ol> </li> </ul> </li> </ul>



<p>러일전쟁</p>	<p>③ 복위 50도 이하의 사할린과 부속 도서를 할양, 연해주와 캄차카에서의 어업권을 승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그러나 언론의 일방적인 보도로 일본이 완벽하게 승리하였다고 믿고 있던 대중은, 일본이 배상금을 한 푼 받지 못한 것을 알자 국가에 배신당했다는 억울함을 폭발시키고 말았다 : 이른바 <b>히비야 공원의 폭동</b></li> </ul> <p><b>2. 러. 일 전쟁 후의 일본</b></p> <p>가. 게이엔(桂元) 시대 (1906~191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가쓰라(桂) 다로</b> (번벌, 관료세력, 육군)와 <b>사이온지 긴모치</b> (중의원 제1당 입헌 정우회 총재)가 서로 <b>내각</b>을 교대로 구성하는 시대 : 정권의 핵심은 야마가타 아리토모를 정점으로 한 원로들</li> <li>* 전쟁의 승리를 배경으로 육군, 해군까지 정치세력화</li> </ul> <p>나. 전쟁 후의 정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06년 <b>제1차 사이온지(西園寺) 내각</b> 성립 : 번벌 세력과 갈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12년 7월 메이지 천황이 사망 : 다이쇼(大正)로 개원함 → 중국에서는 신해혁명으로 중화민국이 성립함</li> <li>- 자유주의 성향의 사이온지 내각이 성립 : <b>최초의 합법적인 사회주의 정당(일본사회당)</b> 출현 → 사회주의 세력을 극히 싫어하는 <b>번벌세력과의 대립</b>으로 총사퇴함</li> </ul> </li> <li>* 1908년 <b>제2차 가쓰라 내각</b> 성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대역사건을 날조하여 사회주의자를 대량 검거</b></li> <li>- <b>공장법을 제정</b>함 : 14명 이하 공장에는 적용하지 않고 <b>1916년 가사야 시행</b>됨</li> </ul> </li> <li>* 1911년 정우회를 배경으로 <b>제2차 사이온지 내각</b> 성립 : 육군은 조선에 배치할 2개 사단의 증설을 요구 → 육군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아 육군대신 사퇴</li> <li>* 제3차 가쓰라 내각의 성립 : 천황의 조칙을 교묘히 이용하여 자신의 내각을 성사</li> </ul> <p>다. 다이쇼 정변과 제1차 호헌 운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3차 가쓰라 내각이 구성되자 국민의 분노가 폭발함 : 자신이 수상이 되고자 함</li> <li>* 입헌 국민당과 입헌 정우회를 중심으로 '별족 타파, 헌정 옹호'를 외치는 <b>제1차 헌정옹호운동</b> 확대 : 내각 구성 53일 만에 가쓰라 내각이 사퇴함 (다이쇼 정변)</li> <li>* 정우회(야마모토 곤베에) 내각 구성 : 1914년 군함 구입비 부정사건(지멘스 사건)으로 사퇴</li> <li>* 원로와 군부는 조선에 배치할 2개 사단 증설안을 실현 : 노정치가 <b>오쿠마 시게노부</b>에게 내각의 구성을 맡김 → 총선에서 압승하여 해군확장안도 가결시킴</li> </ul> <p><b>3. 대한제국의 몰락</b></p> <p>가. 한국의 식민지화 과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러일전쟁 승리 후 한국을 일본의 보호국으로 삼음 : 미국, 영국과 동맹 개정을 통해 승인을 얻음 : <b>미국과 가쓰라. 테프트 조약</b>(미국의 필리핀 식민지화를 인정), 영국과 <b>영일동맹 개정</b>(영국의 인도에 대한 특권 인정)</li> <li>* 일본은 러·일 전쟁을 통하여 대외적으로는 한국을 식민지로 확보하고 국제 사회에서 서양 열강과 대등한 지위를 얻게 되었다.</li> <li>* 1904년 2월 <b>러일전쟁의 발발과 동시에 한일의정서를 강요</b> : 전쟁에 필요한 인적, 물적 징발 목적 → 의정서 자체가 국제법 위반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04년 8월에 <b>제1차 한일협약</b>이 체결 : 일본인 재정고문과 미국인 외교 고문 (일본이 장악)</li> <li>* 1905년 11월 <b>제2차 한일협약</b> : 乙巳勒約, 을사조약 → 을사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의 외교권을 빼앗고 <b>내정과 외교를 관할하는 한국통감부</b>를 설치 (1906년. 이토 히로부미)</li> <li>- 고종에게 협약의 승낙을 강압하고, <b>포츠머스 강화조약이 체결되자 즉각 강행함</b></li> </ul> </li> </ul> <p><b>나. 항일 투쟁의 전개와 한국 병합</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07년 헤이그 밀사사건 : 고종은 보호조약 자체가 무효라고 저항을 계속하고, 헤이그 밀사 사건이 불거짐 → 일본은 고종을 강제 퇴위시키고 순종황제를 즉위시킴</li> <li>* <b>제3차 한일협약</b>을 강제하여 한국 정부의 내정권마저 탈취함 → <b>한국군이 해산</b>됨</li> <li>* <b>민비 시해 사건</b> 이후 <b>의병 투쟁, 애국계몽운동</b>을 일으킴 : 항일운동을 탄압하고 지역을 초토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한국 병합</b> : 일본 정부는 1910년 7월에 한국 병합을 각의에서 결정하여 8월 식민지화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 정부를 없애고 조선총독부를 설치 : 한국을 조선으로 부르기로 함</li> <li>- 초대 총독으로 육군대신인 <b>테라우치 마사타케</b>를 임명함 : 헌병 경찰제도에 의한 무단 정치 실시</li> </ul> </li> </ul> <p><b>다. 일본의 만주 지배</b> : 만주의 배타적 이권 확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06년 <b>관동도독부를 귀순</b>에 설치,</li> <li>* <b>남만주철도주식회사</b> 설립 : 만주 지배의 거점</li> <li>* <b>관동군 설치, 러일 협약</b>을 통하여 <b>만주와 몽고에 대한 양국의 세력범위를 결정</b> : 만주로 진출하려던 <b>미국의 의도가 좌절</b> → 미국과 일본의 관계가 급속히 냉각</li> </ul>
<p>한국강점</p>		

**일본 자본주의의 성립**

**1. 마쓰카타의 긴축 재정책**

- 가. 메이지 초부터 부국강병과 서구화를 지향한 일본은 서양의 자본주의 도입에도 매우 적극적이였다.
  - 나. 초기의 인플레이션과 물가의 급등을 **마쓰카타 마사요시의 긴축 재정책**으로 수습하고, 증세와 정부 사업의 처분을 통해 재정의 안정을 도모하였다.
    - \* 지폐 정리 정책, 군비 확장을 위한 대규모 증세 정책,
    - \* 적자 관영 공장과 광산을 민간에 불하하여 불필요한 세출을 억제함
  - 다. 일본의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만들어지고(1882년), 은본위 화폐제도가 확립된 것도 이 때였다.
    - \* 지폐 발행을 통일, 은본위제에 의한 정화 태환제, 기존 민간의 국립은행을 보통은행으로 전환
    - \* 화폐 통화량을 급속히 축소하여, 물가가 하락하며 경제 불황이 발생함
- : **마쓰카타 디플레** → 자본주의 발전 과정, 계층 분화 현상, 기생 지주제와 도시 빈민 형성과정

**2. 마쓰카타 재정책의 영향**

- 가. 마쓰카타 마사요시의 긴축정책으로 농민층은 분해되었고, 농촌을 떠난 농민이 도시에서 저임금 노동자층을 형성하기도 하였다.
  - \* 소작비의 비율 : 35.5%(1883년) → 40.1%(1892년)
  - \* 기생지주의 지배력 증대 : 하락한 전답 매입, 고리대금으로 지주가 되어 소작료 수입으로 생활함
- 나. 그 결과 일본에서는 자본의 원시적 축적에 필요한 값싼 노동력을 얻을 수 있었다.

**3. 산업혁명의 진행**

- 가. **방적업** : 대규모 면사 방적 공장인 오사카 방적공장이 설립됨 (1883년, 화족과 거대 상인 자금)
  - \* 면사 생산량이 수입량을 초과하고 일본을 대표하는 산업으로 성장함
- 나. **철 도** : 교통 분야에서는 철도의 발달이 눈에 띄었다 → 군사적 측면
  - \* 1889년 관영 철도로 일본의 중심선인 도카이도선이 전 구간 개통되었고,
  - \* 민간에 의한 사철도 발달하여, 1889년에는 민영 철도가 관영 철도를 앞지르게 되었다.
- 다. **배상금의 사용** : 청일전쟁에서 받은 배상금 銀 약 3억5천만엔을 금으로 바꿈
  - \* 태환을 준비한 후 1897년 금본위제를 실시하여 구미 제국과 경제적 교역에서 동일한 기반을 갖춘
  - \* 러일전쟁에 대비하여 군비 확장에 사용함
  - : 전시 수송에 대비하여 법 제정하여 민간 조선업의 대형 선박화, 고속화 장려
  - \* 포병공장의 확장과 야하타 제철소 설립 자금으로 사용함
- 라. 대량 생산체제의 확립
  - \* 증기기관, 기계작업으로 대체하여 기계제 공업이 확립됨
  - \* 대규모 공장에 의한 대규모 생산으로 산업 자본 성립, 자본가 계층 발생
- 마. 사회적 기반을 바탕으로 경공업이 방적업을 중심으로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였고,
  - 청일 전쟁 후에는 뒤쳐진 중공업을 일으키기 위하여 관영 제철소인 야하타 제철소를 설립하였다.

- 4. **기생 지주제의 성립** : 지주로의 토지 집중
  - 가. 수입과 공업에 돌려 현금 수입의 기회가 축소, 토지를 포기하는 농민이 증가
  - 나. **기생 지주제 확립** : 도시의 식량 수요의 증가, 교통의 발달로 쌀의 전국적인 유통이 원활
    - 농촌의 지배 세력이 되어 이익을 농업 외에 투자함
    - : 채권과 주식에 투자되어 자본주의와 연계
- 5. **사회문제와 노동운동**
  - 가. 소작농은 생활이 어려워져 어린 자식을 도시의 공장으로 보내거나 부업을 하면서 생활을 영위함
  - 나. 농촌의 빈곤층이 도시로 유입되어 도시의 하층 사회를 형성함 : 인력거 인부 등
  - 다. **임금 노동자의 증가**
    - \*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시달려 산업혁명기에는 공장 노동자의 파업투쟁이 시작됨
    - \* 노동조합 기성회 결성 (1897년) : 자본가에 대항
      - 1900년 치안경찰법 제정으로 노동운동 단속
      - \* 1901년 사회민주당이 창당되었지만 곧 해산됨
  - 라. 산업혁명과 자본주의 발달은 실업과 저임금, 환경 오염 등 심각한 사회 문제를 일으켰다.
    - : 아시오 동광의 광독 사건은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하겠다.
- 6. **재벌의 형성** : 러일전쟁 후 일본자본주의는 중공업을 중심으로 새로운 발전을 보임
  - 가. **중공업** : 관영 야하타 제철소, 민간의 일본제철소 설립
  - 나. **기계공업** : 세계 수준의 조선 기술, 공작 기계(수입 의존)
  - 다. **경공업** : 섬유 산업이 중심
    - 견사, 견포, 생사, 견직물 등이 수출품의 46% 점유
    - \* 대일본방적연합회 같은 카르텔이 조성됨
  - 라. 제조업, 포경업, 화학비료공업 등에서는 카르텔보다 강력한 트러스트가 성립
  - 마. 정부의 보호 속에 발전한 政商이 생산과 자본의 집중을 증가시켜 자본가로 성장함
    - : 미쓰이, 미쓰비시, 스미토모, 야스다 등이 재벌로 일본 경제를 지배하게 됨 : 큰체른 형태
  - 바. 철도국유법(1906년) 제정으로 전국 철도의 91%가 국유화
    - : 민간회사 주식의 2배에 가까운 고액 매입

일본  
자본주의

### 7. 발전소와 화학 공업

- 가. 발전소 : 1915년 후쿠시마현의 이아와시로 발전소에서 도쿄까지 초고압 장거리 송전이 성공한 것을 계기로 공업에 사용하는 동력이 전기로 전환됨 : 화력 발전에서 수력 발전으로 전환
- 나. 화학공업 : 제1차 세계대전으로 화학 제품의 수입이 중단되어 화학공업이 급속히 발달함
- \* 화학비료의 수출과 국내 농업에 사용
  - \* 공업 총생산액이 농업생산액을 넘어 아시아 제일의 공업국이 됨 (1918년)

### 8. 근대 사상과 종교

- 가. 자유민권운동의 전개로 구미의 철학, 문학, 법학, 예술, 과학기술 등이 유입됨
- \* 두구치 우기치 : 동경경제잡지, 자유주의 경제 주장,
  - \* 나카네 초민 : 루소의 '사회계약론' 번역
  - \* 민권론이 우세한 가운데 국권론이 등장함
    - 도쿠토미 소호 : 民友社 설립 (잡지 발간), 잡지 "고쿠민노토모(國民之友) 발간
    - 이야케 켄쓰레이, 구가 가쓰난 : 세이코샤(正教社)그룹 → '일본인'에서 근대적 민족주의를 주장함
  - \* 청일전쟁의 승리로 일본주의를 주장(토쿠토미 소호), 러일전쟁까지 국가주의가 사상의 주류
- 나. 종교
- \* 신도의 국교화 추진 실패, 불교의 회복,
  - \* 메이지 헌법에서 기독교도 신교의 인정으로 포교에 힘을 쏟음
  - \* 인도주의의 입장에서 사회복지와 폐창운동 전개 → 교육활동에도 힘을 쏟음

### 9. 교육의 보급과 학문의 발달

#### 가. 교육의 보급

- \* 학제의 보급(1872년), 교육령 공포(1879년), 소학교 보급 노력으로 의무교육 취학을 상승
- \* 1886년 학교령 공포, 1907년 소학교 6년간 의무교육제 시행
- \* '교육에 관한 칙어'로 충군애국이 교육의 기본으로 강조됨. 국정교과서 제정

#### 나. 학교의 설립

- \* 게이오의숙, 도시샤 영어학교, 도쿄 전문학교(오쿠마 시게노부), 와세다 대학이 설립되어 관립학교와 다른 학풍이 일어남
- \* 여고에도 현모양처 교육을 중심으로 정부가 여자사범대학교 등 여학교를 세움
- \* 사립학교로 일본여대, 여자영학숙(後の 쓰다주쿠 여대) 등

#### 다. 인문과학, 사회과학

- \* 영국, 미국식의 자유주의 경향에서 메이지 헌법 이후 독일식 국가주의적 학문이 중심이 됨
- \* 일본사, 일본 문학에서 서양식 연구방법 도입
- \* 과학 기술, 의학 분야에서는 외국인 교사의 지도로 근대식 서양 기술이 도입됨

#### 라. 공업 기술 분야 : 백열전구, 무선 정화, 자동차의 수입, 전기 사업이 전개

제 1 차 세계대전

제 12 장. 제1차 세계 대전과 다이쇼 데모크라시

1. 제1차 세계대전의 발발

가. 러일전쟁 후 일본은 한국을 식민지화함으로써 대륙 진출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이 과정에서 중국 진출을 염비던 미국의 관심을 일본이 외면함으로써 미. 일 관계가 냉각되기도 하였다.

나. 일본의 중국에 대한 침략적 태도는 쑨원을 중심으로 신해혁명이 일어났을 때에도 엇보이지만, 제1차 세계대전 시기에도 잘 나타난다

다. 유럽의 동맹 체제 → 동맹국과 협상국 간의 분쟁이 종종 발생함

- \* 20세기 초 유럽은 신흥 독일 제국이 급속히 발전함 : 영국과 대립하게 됨  
→ 독일, 오스트리아 · 헝가리 제국, 이탈리아가 3국 동맹을 맺음
- \* 영국은 고립 정책을 버리고 프랑스, 러시아와 3국 협상이 성립됨
- \* 독일은 오스트리아와 군사적 협력을 강화 : 모로코 문제로 독일과 프랑스의 대립이 첨예화

라. 사라예보 사건

- \* 1914년 6월 오스트리아 황태자 부처가 보스니아의 수도 사라예보를 방문 중 암살당하는 사건
- \* 오스트리아가 세르비아에 선전포고, 동맹국과 협상국 간의 상호 선전포고하는 사태가 발생
- \* 영국은 독일에 선전포고를 하고 일본의 참전을 요청함 : 오키나 내각이 독일에 선전포고함 : 영국은 아시아에 머물고 있는 독일의 무장 상선을 격파하는 정도의 참전을 요구함

2. 일본의 참전과 중국에 대한 압박

가. 1914년 6월 사라예보의 총성이 전 유럽을 전쟁의 와중으로 몰아넣었을 때, 유럽에서 멀리 떨어진 동아시아에는 갑작스런 힘의 공백이 생겨났다.

나. 이것을 절호의 기회로 여긴 일본은 영국조차 원치 않았던 전면 참전을 독일에 선언하였다.

- \* 유럽의 전투에는 참전하지 않고 생색만 내는 정도에 머물렀음
- \* 일본은 태평양에 떠 있는 많은 섬들을 자신의 수중에 장악하였다.  
: 독일의 세력권인 산둥 반도, 자오저우만을 공격, 칭타오를 점령, 독일령 남양제도를 점령함

다. 중국에 대한 압박

- \* 중화민국 임시정부 탄생 : 1911년 신해혁명을 통해 清朝를 멸망시키고 쑨원을 임시 대통령으로 함
- \* 그 후 북방 군벌의 거두인 위안스카이가 혁명파를 누르고 대통령이 되어 정권을 잡음  
: 구미 열강과 일본 정부는 위안스카이 정권에 차관 형태로 자금원조와 정권을 지지함
- \* 남만주에 대한 권익의 기한을 대폭 연장하기 위하여 위안스카이 정부에 21개조 요구를 강요함  
: 일본인 재정 고문 초빙, 일본 무기 수입, 양쯔강 철도 부설권
- \* 중국 국민의 반감이 강하였고 5월 9일을 국치일로 함 : 주권의 침해  
: 후임 단치루이 정권에도 차관을 부여하여 영향력의 확대를 꾀함

라. 일본에 대한 구미 열강의 경계심

- \* 미국과 협정을 체결하여 중국에 대한 양국의 이해 조정을 꾀함
- \* 일본이 중국의 영토 보전, 만주의 문호 개방을 약속하는 대신, 일본의 중국 내 특수 권익을 인정  
: (이시이. 램싱 협약 . 1907년)

3. 제1차 세계대전 경기의 호황과 일본

가. 大戰경기의 호황

- \* 러. 일 전쟁 이후로 누적된 경제 불황과 재정 위기를 한꺼번에 해소함
- \* 면직물 시장에서 아시아 시장을 석권, 미국 시장에 생사 수출이 급증
- \* 세계 3위의 해운 국가로 부상, 철강업, 화학공업 분야의 눈부신 성장, 중화학 공업의 비중 증가
- \* 자본주의 발전에 비하여 물가의 급등은 서민 경제를 압박함, 농촌 경제도 정체를 면하지 못함

나. 국민들의 민주화 요구

- \* 다이쇼 초기 민중운동의 고양으로 1916년에 요시노 사쿠조는 민본주의를 제창함  
→ 보통선거를 열망하는 국민들의 민주화 요구는 정치의 핵심 이슈
- \* 조선총독 데라우치가 후계 수상이 됨 : 강경파 군인으로 정당의 정치 관여를 극단적으로 회피

4. 파리 강화 회의와 베르사유 체제의 성립

가. 연합국 측의 승전 : 영국,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 \* 독일의 식민지 등의 포기와 전쟁 배상금 부과
- \* 국제연맹의 창설 : 미국이 가맹하지 않아 반쪽짜리 기구가 됨
- \* 유럽에서는 영국, 프랑스를 중심으로 세력 균형을 꾀하는 베르사유 체제가 성립함

나. 일본의 전쟁 권익 : 식민지의 증가 → 파리 강화 회의(1919년) 산둥 반도의 독일 권익을 계승, 적도 이북의 남양군도를 위임 통치

<p>세계의 정 세</p>	<p>5. 3. 1 독립 운동과 5. 4운동</p> <p>가. 1919년 파리 강화 회의가 열리고 민족자결주의가 주창되자, 한국에서는 3·1 운동이 일어나고, 곧 이어 중국에서는 5. 4 운동이 일어나, 일본에 대한 아시아 민족의 저항은 더욱 거세졌다.</p> <p>나. 3·1 운동 : 1919년 3월 1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유지 증가와 동양척식회사의 소작인이 된 농민과 이주 조선인은 독립에 대한 강한 욕구를 가짐</li> <li>* 러시아 혁명과 민족 자결의 움직임, 데라우치 내각의 붕괴 속에 독립을 요구하는 운동이 전파됨</li> </ul> <p>다. 5·4 운동 : 1919년 5월 4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둥성의 독일 권익이 일본에 양도된 강화 회의의 결정에 대한 베이징의 대학생들이 집회를 열</li> <li>* 상하이에서는 파업(학생), 파시(상점), 파공(노동자)의 삼파 투쟁의 고양 → 베이징 정부는 체포 학생의 석방, 21개조 조약을 조인한 정부 고관을 파면</li> <li>* 세계대전 중 민족 산업의 발전으로 국내 시장이 확대되고 일본 제품의 배척 → 민족 전체의 항일 운동을 고조시킴</li> </ul> <p>라. 인도의 간디에 의한 비폭력, 불복종 운동 등의 자극을 받아 일어난 운동</p> <p>6. 워싱턴 체제의 성립과 협조 외교</p> <p>가. 하지만 파리 강화 회의에서 일본이 차지한 대부분의 권익들은 그대로 인정되었고, 워싱턴 회의에서도 일본은 당당하게 세계 5대 강국의 위치를 확고히 하였다.</p> <p>나. 워싱턴 회의 : 1921년 → 워싱턴 체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계 대전으로 국제 사회의 새로운 강자로 떠오른 것이 미국임</li> <li>* 태평양 질서의 재편과 중국 시장에 대한 열강들의 경쟁 제한을 목적으로 함 → 해군 건함 경쟁을 제한하여 동아시아에서 일본의 팽창을 저지하기 위한</li> <li>* 일본은 미국과의 협조 체제에 동의하여 국제적 고립을 회피하는 정책을 택함</li> <li>*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의 '4개국 조약'이 체결됨 : 태평양의 영토 보전과 안전 보장의 결함 → 영·일 동맹의 폐기</li> <li>* 중국과 이해 관계를 가지는 9개국 조약 체결 (중국의 주권, 영토보전, 독립 존중, 시장 문호 개방) → 산둥 반도를 중국에 반환</li> <li>*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등 5개국이 해군 군축조약이 체결됨</li> </ul> <p>다. 일본 국내 정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22년부터 대영, 미 협조 외교노선을 기초로 가토 다카아키 내각, 시데하라 외상체제</li> <li>* 1920년 전반 일본은 워싱턴 체제하에서 협조 외교를 전개함으로써 평화로운 국제 질서 유지에 동조했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의 제안으로 출병한 일본은 만주 북부와 시베리아로 세력을 확대할 좋은 기회라고 판단함</li> <li>* 1차 세계대전의 종전으로 열강들은 간섭 전쟁에서 철병함 → 일본은 1922년까지 군대를 주둔, 시베리아 일부를 점령하였으나 러시아 혁명 군대와 민중의 저항으로 간섭전쟁에서 패퇴함</li> </ul> <p>나. 쌀값의 폭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쌀값의 폭등을 예상한 매점매석이 발생 : 서민들의 폭등을 야기, 전국적으로 확대 (米 騷動)</li> <li>* 도야마만 인근의 어촌의 부녀자가 쌀의 반출 정지와 염가 판매를 요구함 : 신문의 보도로 소동의 발단이 됨</li> <li>* 쌀값의 폭등의 전국화 : 공장 노동자, 탄광부, 피차별 부락민, 건설노동자 : 정부의 대응이 늦고 탄압은 엄하여 경찰, 군대까지 동원 → 내각 타도 여론으로 데라우치 내각 총사직</li> </ul> <p>다. 최초의 정당 내각 구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러한 국제 정세를 배경으로 국내에서는 호헌운동을 전개하던 정당들이 정부의 주인이 되는 정당 내각이 출현하였고, 1925년에는 보통선거법이 만들어져 성인 남자에게 선거권이 주어졌다. 이것은 비정당 세력에 대한 정당 세력의 승리였다</li> <li>* 원로들은 관료 내각의 한계를 인정하고, 중의원 제1당인 입헌정우회 총재인 하라 다카시(原敬)를 후임 수상으로 추천함 : 평민 재상으로 불리며 국민의 인기 정치가로 등장함</li> <li>* 1920년 총선거에서 중의원의 압도적인 다수당이 됨</li> </ul> <p>라. 정당 내각의 붕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大戦 후의 경기 악화, 정우회 관련 부정부패 사건, 다수당의 횡포, 정권에 대한 비판이 분출됨</li> <li>* 지식인, 학생, 노조 등의 남자 보통선거제(보선) 실시 요구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임</li> <li>* 1921년 하라 수상이 도쿄역에서 한 청년에게 암살을 당함</li> </ul>
<p>정당정치 출 현</p>	<p>4. 시베리아 출병과 쌀 소동 : 정당 정치의 대두</p> <p>가. 시베리아 출병 : 1918년 구미 열강이 러시아 혁명을 좌절시키기 위한 반혁명세력을 지원하기 위한 전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러시아 혁명으로 소비에트 정권 (노동자, 농민, 병사 협의회)이 성립 (최초의 사회주의 국가) : 러일 협상체제의 소멸 위기로 북만주와 연해주까지 세력을 확대하는 정책으로 맞섬</li> </ul>	

<p>다이쇼 데모크라시</p>	<p><b>마. 보선운동</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통선거권을 요구하는 운동 : <u>민중 운동으로 크게 일어남</u></li> <li>- 1919년부터 1920년까지 전국적으로 연설회와 데모 행진이 전개됨 : 20대에서 50대까지, 학생, 상인, 직공, 회사원 등 <u>다양한 계층에서 참가함</u></li> <li>- 하라 내각은 <u>민중운동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중의원을 해산함</u></li> <li>* <b>정우회의 압승</b></li> <li>- 직접 국세 3엔 이상, 소선거구제에 의한 선거로 정우회가 압승함 (278/464석)</li> <li>- 안정적 의석을 차지하자 <u>사회주의 억압책을 강화함</u></li> </ul> <p><b>바. 정당 정치의 전개 ; 제2차 호헌운동</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관료 내각의 재등장</b> : 정당 정치의 실시와 보선 실시 문제가 정계의 핫 이슈</li> <li>- 1924년 귀족원과 관료 세력에 기반을 둔 기요우라 게이코 내각이 출범 : 헌정회 등 3당은 <u>호헌 3파를 결성함</u> → 보선 당행, 정당 내각 수립을 주장 (<u>제2차 호헌 운동</u>)</li> <li>- 정부는 정우분당을 여당으로 한 의회를 해산하고 총선거를 실시함 : 호헌 3파가 압승</li> <li>- 헌정회의 <u>가토 다카야키 총재</u>가 수상이 됨 : <u>보통 선거법을 성립시킨</u></li> <li>- 기존의 정당들은 무산 정당의 출현과 사회주의자들의 천황제 부정론에 두려움을 느낌</li> <li>* <b>치안유지법의 통과</b></li> <li>- <u>국체의 변형 또는 사유재산제도를 부정</u>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결사나 참가자를 <u>처벌하는 규정</u> → 사상범에 대한 탄압 목적, <u>식민지 조선에도 적용됨</u></li> <li>- 日蘇기본조약 조인에 따른 공산주의 사상의 유입을 <u>저지하려는 의도</u></li> <li>- 4개 사단을 폐지하는 군축과 동시에 군대 장비의 경신, 중학교 이상의 학교에 현역 장교를 배속, 군사 교련의 도입 등 <u>군의 기반 강화를 꾀함</u></li> <li>* <b>憲政의 常道</b></li> <li>- 1926년부터 1932년까지 정우회와 민정당 (헌정회+정우분당) 총재가 교대로 내각을 구성함</li> <li>- 수상에 대한 추천권은 여전히 원로에게 있어 <u>정당 내각의 취약한 근거를 극복치 못함</u></li> </ul> <p><b>5. 다이쇼 데모크라시 시기의 사회와 문화 : 1912년~1926년</b></p> <p><b>가. 사회 경제의 변화</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천정보지주 (千町步地主)</b> : 전국의 <u>소작지 비율이 45%</u>를 돌파</li> <li>- 비료와 농기구의 발달 등으로 경작 면적당 수확량의 증대. 야채, 과일 재배의 성행</li> <li>- <u>기생지주에 의한 토지의 매점이 증가</u></li> <li>* <b>사회 경제의 변화</b></li> <li>- 1919년부터 무역적자, 전후 공황. 간토 대지진(1923년), 금융 공황(1927년)이 발생</li> <li>- 정우회 내각으로 정권이 바뀌었지만 나아지는 것이 없었음</li> <li>- 1920년대에는 전기기계, 전기화학 등 전력 관계 중공업 부문이 발전 “ 공황과 불황의 지속</li> <li>- 재벌들의 기업의 집중, 카르텔 형성, 정경유착, 중소기업의 증가 경향</li> </ul>	<p><b>나. 민주주의적 사회운동</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노동조합의 결성</b></li> <li>- 1912년 스즈키 분지 등에 의한 <b>우애회</b>(초기에는 노사협조 등 온건적 → 점차 급진화)가 <b>일본노동총연맹(총동맹)</b> 으로 개칭 (<u>1921년</u>)하면서 계급투쟁주의를 명확히 함</li> <li>- 1925년에 좌파그룹으로만 결성된 <b>일본노동조합평의회(평의회)</b> : 일본 공산당의 지도</li> <li>* <b>일본 농민 조합의 결성</b> : 농민 운동에 지도적 역할을 담당 (1922년)</li> <li>* <b>세이토샤 (靑踏社)</b>의 결성 : <u>여성의 해방, 지위의 향상을 꾀하는 사상과 운동</u> → 문학적 사상 계몽운동이 중심, 여성 참정권. 赤蘭會(사회주의) 결성</li> <li>* <b>공산당의 결성</b> : 1922년 러시아 혁명과 노동운동의 고양에 따라 비밀리에 결성</li> <li>* <b>피차별 부락</b> (천민인 에타의 거주지를 부락이라고 함)의 주민들이 사회적 차별을 자주적으로 철폐하려는 부락 해방운동이 일어나 <u>192년 전국수평사가 결성됨</u></li> <li>* 참정권 확대 요구인 보통 선거권 획득 운동이 공통적으로 주장</li> </ul> <p><b>마. 간토 대지진과 조선인 학살사건</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간토 대지진 : 1925년 9월 1일 발 생하여 도쿄, 오사카 지역 일대가 궤멸됨</li> <li>- 유언비어 속에서 자경단이나 경찰관에 의해서 조선인, 중국인, 일본인까지도 학살 당함</li> <li>- 조선인 유학생들이 재난의 희생자 : 약 6.700명의 조선인, 약 700명의 중국인이 희생됨</li> <li>* 무정부주의자인 노동운동 지도자 10여 명이 살해되었다</li> </ul>
----------------------	---	--

軍 部의  
登 場  
·  
大 陸 侵 略

## 군부의 등장과 대륙 침략

### 1. 군부 등장의 배경

가. **금융 공황** : 제1차 세계 대전 이후 전후 공황에 시달리는 일본

\* 금융 공황(1927년 3월) : 재난 어음의 처리를 둘러싸고 민간 은행의 경영 악화의 표면화. 예금 인출  
나. 거대 상사인 스즈키 상점이 파산하고, 그 영향으로 타이완 은행의 경영이 악화됨

다. **와카스키 내각**은 구제를 위하여 긴급 칙령안을 제출했지만 부결되어 총사직함  
: 내각의 외교정책에 대한 불만이 부결의 원인임

### 2. 만주 사변 전의 일본과 중국

가. 1920년 전반 일본은 워싱턴 체제하에서 협조 외교를 전개함으로써 평화로운 국제 질서 유지에 동조하였  
다. 중국에 대해서는 경제 진출에 중점을 두는 외교 정책을 전개함 : 시데하라 외교

나. 중국의 제국주의 열강의 침략에 대한 민중 운동

- \* 1924년 중국국민당과 중국공산당(쑨원)이 제국주의와 군벌의 타도를 공동 목표로 제1차 국공합작을 성립함
- \* 1926년 **장제스(蔣介石)**를 총사령관으로 하는 **국민혁명군**은 군벌 타도를 목표로 북벌을 개시함  
: 이에 대하여 일본 내에서는 시데하라 외교를 군부, 재계, 정우회가 '연약외교'라고 비판함

### 3. 다나카 내각의 파병

가. 정우회의 다나카 기이치가 내각을 조각

- \* 3주 간의 모라토리움과 일본은행으로부터의 비상 대출로 금융공황을 수습함  
: 중소 은행의 타격에 비해 5대 은행은 영향력이 강화됨

나. 일본의 **대외 정책**도 급변하는 중국의 정세에 따라 흔들리기 시작하였다.

- \* 1926년 **장제스의 북벌**이 개시되었을 때, 일본이 산둥(베이징)에 세 번이나 출병하여 중국의 통일을 방해한 일(노동 농민당을 비롯한 **무산 정당**들은 대중국 불간섭 전국 동맹을 결성하여 출병을 반대함),
- \* 일본은 滿蒙을 일본인이 안주할 땅으로 삼을 것을 결정  
: 만몽을 지배하는 산둥의 **친일 군벌 장쥘린**을 장제스와 대립시키려고 하였으나 관동군이 폭살시킴  
(장제스의 국민혁명군에게 누명을 씌우고 **전면전으로 만주를 점령하려는 모략** : 다나카 내각이 총사직함)  
→ 협조 외교의 틀을 깨뜨리는 대표적인 사례로 만주에서의 반일 운동의 격화의 원인이 됨

다. 일본 국내에서는 1928년 최초의 보통선거가 실시되어 무산 정당은 8명의 당선자를 얻음

- \* 다나카 내각은 3.15사건, 4.15사건으로 공산당원을 검거
- \* 노동농민당, 일본노동조합평의회 등에 해산을 명령함 : 치안유지법을 강화하여 탄압을 강화함

## 4. 만주 사변과 만주국

가. 런던 해군군축조약과 통수권간범 문제

- \* **하마구치 오사치 내각**의 등장  
시데하라 외상의 협조 외교노선이 부활됨 → 금 수출금지를 해제
- \* 협조외교는 1930년 런던 군축 회의 비준을 둘러싸고 난관에 봉착함 : **통수권간범(統帥權干犯)**. 천황의 고유 권한인 병력량 결정을 정부가 조인한 것을 비판함  
→ 해군 강경파가 제시한 순양함 對 영·미 7함의 비율의 마지노선을 채우지 못하고 조인함을 비판
- \* 하마구치 내각의 강경 대응으로 겨우 비준됨  
: 1931년 하마구치 수상이 우익에게 저격당함

나. 세계 대공황에서 비롯된 **쇼와(昭和)공황**

- : 1929년 미국에서 시작된 세계 대공황의 영향
- \* 수출의 격감. 긴축 정책으로 인한 불황, 조업 단축, 도산 현상  
: 노동 강화, 임금 삭감, 인원 정리
- \* 농촌의 타격 : 누에값 폭락, 쌀값 폭락으로 흉작이 기근을 초래  
→ 농업 공황
- \* **노동 운동의 격화** : 중소기업의 절박한 쟁의, 대기업의 대규모 쟁의, 농촌에서의 소작쟁의

다. 정치에 대한 불신

- \* 강경파들의 급진적인 수단 강구  
: 군부와 관료 사이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룹이 나타남
- \* 1931년부터 일본의 중국 침략으로 워싱턴 체제하의 협조체제는 종언을 고함
- \* **호헌 운동**을 통하여 정당 내각이 성립한 후 1932년까지 중의원에서 세력을 차지한 정당의 당수가 내각을 구성하는 관행이 이루어졌으나, 선거권의 확대로 선거 자금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자 정당 정치를 재벌과 유착하는 금권 정치로 변질되어 정당에 대한 불신을 더욱 조장시켰다

라. **만주 사변** : 장쥘린 사건으로 배일운동 격화

- \* 일본의 국가주의 성향이 강한 여론과 군부는 1930년 런던의 해군 군축 회담의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고 1931년 만주를 침략하기에 이르렀다.
- \* 장쥘린의 아들 장샤오량은 장제스의 중국국민당과 손을 잡자, 관동군은 위기감이 증폭되어 만주 지역을 무력으로 일본 세력하에 넣겠다는 계획을 수립함
- \* 1931년 9월 류타오후(柳條湖)에서 남만주 철도 연선이 폭파되자 이를 중국군의 도발이라고 우기며 군사 행동을 개시함 : 만주 사변의 시작
- \* 일본 정부는 불확대 방침을 결정에 대해 일본군(조선군)이 천황의 명령없이 독단으로 불법 월경을 단행하여 확전되기 시작함 : 12월에 정우회의 이누카이 내각이 들어섬
- \* 만주국 건국을 선언 : 1932년 3월 만주 지역의 주요 지역을 점령 후 청나라 최후의 황제였던 선통제 푸이(溥儀)를 탈출시켜 집정으로 삼음 : 일본과 중국의 15년 전쟁이 시작됨
- \* 중국은 국제연맹에 제소하고, 구미 열강은 일본의 행동을 비난 → 국제연맹은 영국의 리튼 조사단을 파견

## 5. 군국주의 일본의 중국 침략

### 가. 일본 파시즘의 등장

- \* 혁신파(군부의 청년 장교, 우익)에 의한 국가 개조 움직임 → 군부 중심의 내각 구성의 필요성을 주장함
- \* 1932년 혈맹단 사건으로 암살을 자행하고 5/15에는 해군 장교들이 이누카이 수상을 사살함 : 정당 내각을 붕괴시킴

나. 정당 내각의 종언 : 마지막 원로인 사이온지 긴모치는 사이토 마코토(齊藤実)를 추천함

- \* 사이토 내각은 日滿議定書를 체결하고 만주국을 승인 → 국제연맹은 일본에 사변 前의 상황으로 복귀할 것을 권고함
- \* 국제연맹 총회(1933년 2월) 에서 대일권고안이 채택되자 국제연맹 탈퇴를 통고함 : 워싱턴 체제 이탈과 국제 사회에서의 고립의 길을 선택함
- \* 일본은 독자적인 만주 경영에 나서고 帝政을 실시함 : 푸이 황제를 즉위시킴 → 1936년에는 워싱턴, 런던 군축 회의를 탈퇴함

## 6. 공황 경제의 탈출과 군국주의의 대두

### 가. 관리 통화체제 돌입

- \* 1931년 12월 이누카이 내각이 성립 후 금수출 재금지를 단행함 : 관리통화체제 → 엔의 환율 하락을 기회로 수출을 비약적으로 증대시킴
- \* 미국, 영국이 일본 상품에 대한 덤핑 판정으로 고관세를 부과하였으나, 면직물 수출은 영국을 제치고 세계 1위로 부상함
- \* 만주 사변으로 인하여 군수 경기와 수출 증진으로 산업계는 활기를 찾음 : 1933년에는 공황 이전의 수준으로 경기가 회복됨 → 군수산업과 연관된 중화학공업이 발전함
- \* 일본제철회사, 자동차 공업과 화학공업에서도 신흥재벌이 등장함

나. 국방국가 건설 계획의 추진

: 혁신 관료 그룹과 군부의 막료 그룹이 연계됨

- \* 일본국가사회당의 결성 (1932년)  
일본 좌익의 국가사회주의로의 전향의 시대로 사회운동의 빙하기
- \* 사상과 언론의 탄압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탄압 사건이 계속됨
- \* 군부의 정치적 발언이 강화됨 (1930년대 중반)  
군부와 혁신 우익이 대두되기 시작함

다. 군부, 혁신우익의 대두

- \* 오카다 게이ске 내각이 등장 (1934년)  
육군성에서 “국방의 본위와 그 강화의 제창” 문건이 공개 : 육군이 정치, 경제에 관여해야 한다는 내용
- \* 도쿄대학 교수 미노베 다쓰기치의 ‘천황기관설’에 대한 비난에 대해 공격하여, 내각은 굴복하여 國體明徴聲明을 발표하고, 미노베는 의원직을 사임함

라. 군부의 대립 양상 : 統制派(군의 주도권 장악)와

皇道派(반 공산주의, 복고적, 정신주의적)

- \* 2. 26사건 : 황도파 계열의 육군 청년 장교들이 쿠데타를 단행  
- 대장상, 내대신, 육군 교육총감이 살해됨  
- 도쿄정치 중심가인 나카타초가 점거 당함 : 쇼와 천황이 반란으로 규정하여 군부에 의해 진압당함  
- 일본의 대륙 침략을 가속화시키는 촉매 역할을 하였다
- \* 쿠데타의 수습에 나섰던 육군 당국은 肅軍(군의 기강을 위해 내부의 부정에 관련된 사람과 불순분자를 숙정함)을 단행함 : 통제파의 정치적 영향력이 확대됨
- \* 후임 내각은 각료의 인선이나 정책에 대해서까지 군부의 요구를 수용 : 정치 개입을 용인함



## 7. 삼국 방공 협정과 중·일 전쟁

### 가. 삼국 방공 협정 : 일본, 독일, 이탈리아 삼국 주축 진영

- \* 1930년대 들어 베르사유체제와 워싱턴체제가 흔들리기 시작함
- \* **이탈리아는 무솔리니의 파시스트 정권**(1922년), 제1차 세계대전에서의 패배 후유증에 시달리던 독일은 **히틀러의 나치스** (국민사회주의 독일노동자당, 1933년)이 정권을 장악함
- \* 독일은 국제연맹에서 탈퇴하고 재무장을 선언함(1935년) : 독일과 이탈리아는 스페인 내전에서 우익 프랑코 정권을 지원하는 것을 계기로 베를린, 로마 주축이 이루어짐
- \* 독일과 일본이 독일 방공 협정을 체결하며, 1936년 삼국 방공 협정이 체결됨

### 나. 중·일 전쟁

- \* 일본은 중국 정부와 **중일 군사 정전 협정**을 체결함 (1933년 5월). 그러나 일본은 **화북분리공작**을 추진하여 (만리장성 이남의 중립지대에 괴뢰정부를 세우고, 이를 지원하며 국민 정부와 분리시키는 공작)을 추진함 : 화북지역에서 밀무역으로 부를 축적하여 전쟁자금으로 활용코자 함
- \* 중국에서는 1936년 시안사건을 계기로 **장제스**는 국공내전을 중지하고 일본에 대한 응전태세를 갖추기 시작함 : 1937년 루거우차오(盧溝橋)에서 양국이 충돌함 → 중, 일 전쟁의 발발
- \* 중국의 국민 정부도 9월에 제2차 국공합작을 성립시켜 전국적인 항일전선이 형성됨

### 다. 난징 대학살

- \* 국민정부의 수도 난징을 점령(1937년 12월, **난징 대학살 사건** : 중국인 수십 만 명을 살해, 침략, 방화, 부녀자 폭행) → 국제적인 비난이 비등함. 일본 국내에는 알려지지 않음
- \* 1938년 1월 “장제스의 국민정부를 대화 상대로 하지 않겠다”는 성명을 발표함
- \* 1938년 말에는 “**東亞 신질서의 건설**”이 전쟁의 목표임을 공표하고, 국민정부의 주요 인사인 왕자 오밍을 충칭에서 탈출시켜 새로운 난징정부를 수립함 : 장제스 정부는 미국, 영국, 소련의 원조를 받으며 항전을 계속함

### 라. 일본 국내의 국가총동원 체제의 확대

- \* **국가총동원법** (1938년, 정부가 의회의 동의없이 경제와 국민 생활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의 제정
- \* 정부 내에 기획원이 설치되어 물자 동원계획이 작성되고 군수품이 우선적으로 확보됨
- \* **국민징용령**(1939년, 일반 국민도 군수산업에 동원할 수 있게 됨), **재벌과 대기업도 군수 생산에 적극적 협력함**
- \* 일본의 군수품 확보의 어려움
  - **미일 항해 조약의 폐기**(1939년 7월)로 군수품 확보가 곤란해짐
  - 민간 생활용품에 대한 수입 통제 : 면제품의 생산 판매 금지, 설탕 등의 물표제, 쌀 배급제, 일용품에 대한 통제
  - 농촌에서의 공출제, 식량난의 심각한 상태
  - 군수품의 조달은 점령지(엔 블록)만으로 부족함 : 영국, 미국의 대일 무역 규제로 자원 확보의 눈을 동남아시아로 돌리게 됨

제 14 장. 제2차 세계대전과 일본의 패망

1. 중. 일전쟁의 장기화

- 가. 세계 정세를 배경으로 일본은 1937년 중국과 전면전에 들어갔다. 이렇게 시작된 중, 일 전쟁은 애초의 예상과는 달리 장기전으로 치달았다. 국공합작을 이룬 중국의 저항이 예상보다 집요했기 때문이었다.
- 나. 일본은 국가총동원법을 만들고, 이어서 국민징병령도 실시하여 전시 총동원 체제로 돌입하였지만 중국을 완벽하게 장악할 수 없었다.
- 다. 중국의 국민정부는 수도를 난징에서 충칭으로 옮겨 일본에 항전을 계속하였다. 일본군은 중국의 주요 도시를 대부분 점령하였으나 점령지는 '점과 선(도시와 철도선)'에 그쳤다 : 군사력 동원의 한계
- 라. 일본은 방공 협정에 따라 가상 적국이 되어버린 소련과의 대치하에서 만. 소 국경의 장고봉에서 조선 주둔 일본군과 소련군간의 충돌(1938년. 장고봉 사건)과, 만. 몽 국경의 노몽한에서 소련. 몽고군이 관동군과 충돌(1939년 5월. 노몽한 사건)이 발생함 : 관동군의 대패

2. 일. 독. 이 삼국의 군사 동맹

- 가. 1930년대 중반은 독일에서는 히틀러의 나치스가, 이탈리아에서는 무솔리니의 파시스트가 독재체제를 굳혀가던 시기였다. 일본에서도 정당 정치가 종식되고 군부를 중심으로 국가주의적 성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 나. 유럽 지역의 전황 : 독일의 팽창. 1930년대 후반
  - \* 오스트리아 병합(1938년), 소련, 영국, 프랑스도 가상적국으로 하는 군사동맹을 일본에 제안
  - \* 독일이 폴란드를 공격하자 (1939년 9월) 영국, 프랑스도 독일에 선전포고함 : 제2차 세계대전 발발
- 다. 일본은 독일과의 군사동맹에 소극적 : 유럽전쟁에는 개입하지 않는 방침
  - \* 독일이 유럽 각지를 점령하며 프랑스에 입성함(1940년) : 일본은 동남아시아로 진출하자는 분위기 → 영국 및 미국과 전쟁을 각오하여야 했음 : 군부의 움직임을 정부나 의회가 통제할 힘이 없었음
- 라. 삼국의 군사동맹
  - \* 1936년 독일·이탈리아·일본은 소련을 가상 적국으로 삼아 방공 협정을 맺어 이른바 주축 진영을 형성하였다. 이들은 워싱턴 체제와 베르사이유 체제를 타파하고 새로운 세계 질서를 만들고자 함
  - \* 독일의 군사적 성공에 매혹된 일본에서 일독 동맹론이 일어남 : 일,도,이 삼국 군사동맹을 조인함 (1940년 9월) → 삼국의 지도적 지위를 상호 승인, 동맹국 간 상호 원조
  - \* 南進論 : 중일전쟁을 타개하기 위한 원장(援蔣)루트(장제스를 지원하는 루트) 차단 및 석유, 철광석 등 전략물자 획득 목적
  - \* 프랑스령인 인도차이나를 침공(1940년 9월), 군대를 진군시켜 영.미 세력권(필리핀, 말레이 반도)을 위협 : 미국은 미일통상항해조약 폐기, 철강, 석유의 대일 수출 금지, 재외 일본 재산의 동결
  - \* 미국과의 관계만 극도로 악화되어 미. 일 통상조약이 폐기되기에 이르렀다.

● 전시하의 국민 생활과 문화

1. 국민 생활의 붕괴

- 가. 군수 생산에 박차 : 풀뿌리 뽑기 방식의 동원, 식민지 지역에 대한 군사력과 노동력 강제 동원 → 학도 출신. 어린 학생의 근로 동원, 여학생의 여자 정신대(군수공장) 동원
- 나. 구미 국가로부터의 수입 중단 : 물품의 배급제, 전쟁의 심각한 후유증
- 다. 본토 공습의 본격화 : 군수공장 이전. 노인, 부녀자의 소개 (疏開. 주민, 시설의 분산), 學童疏概
- 라. 군사비의 증대, 공채 난발로 인플레이션 발생, 厭戰의 기분이 퍼짐 : 물물교환으로 연명
- 마. 통제와 정보 조작, 초국가적인 교육에 의해 국민의 불만은 표출되지 못함

2. 1930년대 학문과 교육

- 가. 사회과학 수준의 향상 : 마르크스주의 이론이 도입 → "일본 자본주의의 발달사 강좌" (1932년)
  - 나. 학문에 대한 통제
    - \* 형법학설(자유적이고 구체에 반한다는 이유) 발매금지, 천황 기관설을 이론화(미노베. 국제명징성명)를 공격함
    - \* 중일 전쟁의 시작 후 통제 강화 : "국체의 본의"를 작성하여 국체의 존엄을 강조 → 국민정신 총동원 운동 시작, 일상 생활에 대한 통제
    - \* 마르크스 경제학자의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검거
  - 다. 소학교 명칭이 초등학교로 개칭 : 황국신민의 육성 → 국민과, 체련과 교과목을 만들어 심신일체의 교육을 실시함
3. 문화계의 변화
- 가. 카페와 댄스홀 등이 성행 : 불안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음
  - 나. 프롤레타리아 문학 운동 : 전일본 무산자 예술동맹과 기관지 발행
  - 다. 문예부흥 : 1930년대 들어 성숙한 작품과 예술주의적 작품 → 로레리아 문락운동은 쇠퇴
  - 라. 전쟁문학의 유행 : 일본문학보급회가 결성(1942년) → 낭만파는 초국가주의적 시류와 연합
  - 마. 전쟁에 협력하지 않는 작가들도 있었음

### 3. 파시즘 체제의 확립

가. 결국 밖으로부터의 자원 조달이 어려워진 일본은 경제적으로는 강력한 통제 경제를 실시하지 않을 수 없었고, 정치적으로는 대정익찬회를 만들어 일국 일당 체제를 추구했다.

- \* **대정익찬회(大政翼贊會)**의 결성 : 1940년 10월
- \* “一國 一黨”적인 신정당 수립 : 일본형 파시즘체제를 확립함
- \* 수상을 총재로 하고 도부현 지사를 지부장으로, 정내회, 부락회, 도나리구미를 갖춘 관료적 조직

나. **대일본산업보국회** 설립 : 1940년 11월

- \* 노동자를 통제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을 해체시킴
- \* 국민징용령과 민수산업의 노동자를 군수 산업으로 동원, 학생, 미혼여성을 강제로 군수산업에 동원

### 4. 태평양 전쟁의 발발

가. **미일 교섭의 개시** : 1941년 4월 → 미리 교섭안이 상호 일치하지 않아 결렬됨

- \* 미일 교섭 전에 **스탈린과 일소 중립조약**을 체결하여 미국에게 압력을 가함
- \* 6월 22일 독일과 소련의 전쟁이 시작되자 북진론이 대두되어 소련과의 국경에 대군을 파견
- \* **미국은 일본이 베트남을 점령한데 대하여, 대일 석유 수출금지조치를 취하며 중일전쟁 이전상태로 복귀할 것을 요구함** : 1941년 11월 일본과의 전쟁은 피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최후 통첩을 함

나. 태평양전쟁의 감행

- \* 일본은 마지막 선택으로 **1941년 12월 진주만에 대한 기습 공격**을 강행 → 미국, 영국에 선전포고  
- **영국의 식민지인 말레이 반도의 코타발 지역을 기습 상륙하고, 해군은 진주만을 기습함**
- \* 홍콩, 말레이 반도, 싱가포르, 미얀마, 네덜란드령인 동인도 제도, 필리핀 제도를 점령 (1942년 5월)
- \* 미국의 반격으로 일본은 수세에 몰리게 되었다.

### 5. 전쟁의 참상 : 오키나와전과 본토 공습

가. **대동아 공영권 건설을 선전**

- \* 독일, 이탈리아도 미국에 선전포고함으로써 전쟁은 전 세계로 확대됨
- \* 일본은 점령지에 대한 군정을 실시 : **구미 열강의 지배에서 아시아를 해방, 대동아공영권의 건설**
- \* 緒戰에서 미국의 태평양함대의 주력을 파괴하여 승리하였으나 **미국과의 국력 차이 (30배)**를 알고 있었음 : 전쟁 열기가 만들어 내는 정신 나간 “주산 알의 마력”

나. **전쟁의 국면 변화**

- \* 1942년 6월 미드웨이 해전에서 무참히 패배함 : 1943년 2월 솔로몬 제도에서 일본군이 철퇴 → **전쟁의 주도권이 미국으로 넘어 가고, 태평양 지역에서 보급로가 차단됨**
- \* 일본의 지배에 대한 아시아 각 지역의 반발이 강해짐
- \* 독소 전쟁에서 독일군이 스탈린그라드에서 패퇴하자 소련군이 반격을 개시함 (1943년 2월)

\* **미,영,중 연합국 수뇌가 대일 선언 발표**

: **전쟁 종결방침을 토의 (1943년. 카이로 선언)**

→ **중국의 귀속, 조선의 독립**

\* **이탈리아의 항복(1943년 9월), 독일의 항복(1945년 5월)**

: **미,영,중 연합국 수뇌가 대일 선언 발표**

→ **전쟁 종결방침을 토의 (1943년. 카이로 선언. 중국의 귀속, 조선의 독립)**

다. **오키나와 전투** : 일본 영토에서 일어난 유일한 지상전

- \* 미국은 일본 본토 공습을 개시(1944년 11월 이후)  
: 대도시, 공업지대를 집중 폭격
- \* **오키나와 공격 작전(1945년 3월 하순)** : 일본은 본토 결전을 위한 지구전을 전개 → **철의 폭풍**
- \* 1945년 6월말 오키나와는 미국의 점령하에 들어감

### 6. 일본의 항복

가. 항일 운동의 계속

**중국(중국 공산당의 해방구 확대), 조선인민혁명군과 한국광복군, 베트남(호치민의 독립동맹), 필리핀(항일인민군)**

나. 일본의 항복

- \* **알타회담** (1945년 2월. 소련의 일본전 참전 결정), **포츠담 선언** 7월 미국, 영국, 중국은 3국 동맹으로 일본의 항복을 요구 → 일본은 이를 묵살함
- \* 원자 폭탄 투하 (히로시마, 나가사키. 1945년 8월6일), 소련은 만주, 조선으로 진입하여 관동군을 괴멸함
- \* 일본의 무조건 항복 선언 (8/14), : 미국 군함 미주리호 선상에서 항복문서에 서명 (9/2)
- \* 전쟁 사망자 : 아시아, 태평양 지역 2천만명, 일본인 330만명

제 15 장. 점령기의 개혁과 현대 일본

1. 일본 점령과 연합군 최고 사령관 총사령부 (GHQ)

가. 일본은 1945년 8월 무조건 항복함으로써 연합군의 점령하에 놓이게 되었다. 연합군의 일본 지배는 **연합군군 최고 사령관 총사령부인 GHQ가 담당하였다.**

나. 그 최고 사령관이었던 **맥아더 장군**은 초법적 권한을 행사하면서 점령 정책을 실시했으나, 그것은 직접 지배가 아니라 **일본인 내각을 통한 간접 지배**였다

- \* 일본 정부가 최고사령관의 지령과 권고에 따라 정치를 하는 방식
- \* 워싱턴에 극동위원회를 두고 도쿄에는 자문기관으로 미,영,중,소 4개국으로 구성된 대일위원회 : 실질적으로는 미국의 단독점령 → 오키나와를 제외한 간접 점령정치가 시작 (10/2)

다. 연합국 50여 국가는 1945년 10월에 **국제연합을 탄생**시킴 : 동서 양 진영의 대립은 시작

2. 초기 점령정치와 민주화 개혁

가. **5대 개혁 지령** (1945년 10월)

여성 해방, 노동조합의 육성, 교육의 민주화, 압제적 사법, 경찰 제도의 폐지, 경제의 민주화

나. 극동국제군사재판 (1946년 5월) : 쇼와 천황은 제소되지 아니함

다. **천황의 인간선언** (1946년 1월) : 국가와 신도의 분리 지령, 자신의 신격을 부정함  
→ 천황의 인간 선언은 당시의 **민주화 정책**을 상징하는 사건이었다

라. 전쟁 협력자 21만 명을 공직에서 추방함

마. 민중운동의 급속한 추진

- \* 전일본 산업별 노동조합회의(산별), 일본노동조합총연맹(총동맹), 일본농민조합 등 전국조직 결성
- \* 일본 공산당의 활동 재개, 일본사회당, 일본자유당, 일본진보당, 일본협동당 결성
- \* **노동조합법 제정** : 노동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쟁의권 보장

바. GHQ의 지령으로 **부인 참정권과 유권자 연령을 20세로 낮추는 정책**이 실현됨

- \* 재벌 해체 방침으로 독점 금지법, 과도경제력집중배제법 제정 : 4대 재벌의 해체 명령
- \* 자작농 창설 특별조치법 : 제2차 농지 개혁으로 전 농지의 90%가 자작지가 됨 → 기생지주제가 소멸됨

사. **GHQ의 점령 정책**은 일본의 비군사화와 민주화에 있었다. 따라서 육해군의 해체, 전범의 체포, 천황제 비판의 자유, 정치범의 석방, 사상 경찰의 폐지 등 과감한 정책들이 실시되었다.

아. 경제면에서도 군수 산업과 재벌에 규제가 가해졌고 독과점 금지법 등이 만들어졌다.

3. 일본국 헌법

가. **패전과 국민 생활**

- \* 식량난과 인플레이션 : 물가 급등, 쌀 대신 간자, 고구마로 배급을 대체
- \* 최초의 총선거 : 맥아더의 성명 발표로 자유, 진보의 두 부수 정당의 연립에 의한 요시다 시게루 내각

나. **헌법과 교육개혁**

- \* 1946년에 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새 헌법의 만들어졌다. 이 헌법은 전쟁 포기 조항이 들어 있어 **평화 헌법**이라 불리기도 한다

\* **헌법개정** : 민주화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설정

- GHQ가 헌법 초안을 작성해 일본 정부에 교부함
- 1946년 11월 3일에 신헌법안이 공포되어 이듬해부터 시행에 들어감
- **主權在民, 평화주의, 인군존중의 3원칙의 확립, 양원제 국회, 천황은 일본 국민통합의 상징**
- **헌법 제9조** : **전쟁의 방지**, 국제분쟁의 해결의 수단으로 **무력을 사용하지 않는다** → 군대를 가지지 않는다고 규정됨
- 지방자치법의 공포(도도부현 지사의 공선제)와 경찰법(지방자치 제경찰과 국가경찰의 두 계통) 강화

\* **교육개혁**

- 교육기본법 공포 : 교육 기회 균등, 남녀 공학, 9년간 의무교육
- **교육칙어의 폐지**. 지자체 내에 공선에 의한 **교육위원회 설치**
- 직업 군인과 군국주의자를 교직에서 축출, 신도를 국가에서 분리, 교육기본법과 학교교육법 공포

\* **새로운 민법의 제정** : 男女同權, 재산의 균등상속

\* **노동 3법 정비** : 보통노동기준법, 노동조합법, 노동관계조정법

다. 이처럼 전 분야에 걸쳐서 GHQ의 개혁이 단행되었지만 모든 개혁 정책이 성공적으로 진행된 것은 아니었다. 전후 소련이 강대국으로 부상하면서 자본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의 대립이 거세지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4. 냉전 체제의 전개

가. 점령정책의 변화

- \* 이처럼 점령 정책이 변화함에 따라 과거 일본을 전쟁으로 이끌었던 정치가들이 다시 정계에 복귀하여 정치는 갑자기 보수화되었고, GHQ의 **민주화 정책**은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 \* 이른바 냉전체제가 시작되자 일본의 역할이 바뀌기 시작했다. 즉, 아시아에서 공산주의를 방어하는 방파제로서의 역할이 일본에 부여되었다. 이제는 일본의 경제 재건과 재무장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 \* GHQ의 지령으로 노동조합의 스킨라이크는 중단되고, 아시아 내각은 정령 201호를 공포하고 공무원의 쟁의권, 단체교섭권을 부인함

나. 경제와 노동운동

- \* 경제 안정 9원칙을 제시함 (돛지 라인) : 미국의 국무성과 국방성의 요구
  - 1949년 예산은 지출을 삭감한 균형 예산으로 편성, 단일 환율 설정, 세제 개혁
    - 일본 경제는 심한 불황으로 중소기업 도산, 실업자 증가 등 사회문제가 발생함
- \* 정부는 행정 정리, 기업 정비를 내걸고 대량 해고를 추진함
  - 국철, 도시바 등 노조에서는 해고 반대 투쟁이 예고됨
- \* 시모야마 사건, 미티카 사건, 마쓰카와 사건 등의 범인으로 노조 임원 등이 체포됨
  - 민주화 동맹파가 조합의 주도권을 장악하여 반대 투쟁은 좌절되고 인원 정리가 실시됨

다. 일본의 재군비

- \* 도쿄전범 재판(1948년 11월)으로 전쟁 범죄의 추궁은 종료됨
- \* 경찰예비대 창설(1950년 7월) : 헌법 9조 위반의 논란을 일으킴
  - 맥아더의 서한으로 재일 미군의 한국 출동 후 치안유지 등을 담당할 군사력을 대신하기 위함
  - 무기, 탄약은 미국이 제공, 미국 장교로 편성된 군사 고문단이 지휘권을 장악함
- \* 6.25 전쟁 발발 직전에 일본 공산당의 전 중앙위원의 공직에서 추방함
  - 정치 집회와 데모 행진을 금지함 (레드 퍼지도 취함)
- \* 한국전쟁의 시작으로 일본은 유엔군의 기지가 됨 : 돛지라인으로 인한 불황에서 호경기로 전환됨
  - 무기, 군수품의 생산, 수리 수송에 공장, 선박, 철도가 최대한 동원됨

5. 샌프란시스코 강화 회의 (1951년 9월) : 6.25 전쟁의 발발 이후

가. 일본의 주권회복, 한국의 독립 승인, 타이완, 평후제도, 지시마 제도, 남사할린 영토권의 방기

나. 남서 제도와 오가사와라 제도에 대한 미국의 시정권행사의 계속, 외국 군대 주류의 승인

다. 요시다 내각(정권)와 48개국 사이에 조인됨

6. 미,일 안전보장조약 (1952년 4월)

가. 대일 강화 방침 : 오키나와 제도의회하는 일본으로의 복귀를 결의함

나. 미국에 대한 자국 내 영토를 군사기지로 제공하고 미국은 일본의 방위를 책임진다

다. 일본 본토에서는 모든 교전국과의 강화를 여구하는 운동이 일어나고 사회당은 강화조약의 찬부를 놓고 분열함

7. 국제 사회로의 복귀

가. 강화조약의 발효

- \* 1952년 4월 28일 강화조약의 발효로 일본의 주권은 회복됨
  - : 오시다 내각은 경찰예비대를 보안대로 고치고 해상경비대를 신설함
- \* 미국과 MSA(상호방위 원조협정)을 체결하고 방위력 증강의 의무로 보안대, 해상 경비대를 육상자위대, 해상자위대로 발전시키고 항공자위대를 신설함 (1954년 7월)

나. 자유민주당의 결성 (1954년 12월)

: 하토야마 내각 → 보수합동 실현

- \* 1950년대 말부터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한 이른바 제3세계가 등장함에 따라 세계는 미.소 양극 체제에서 다극 체제로 바뀌어 가고 있었다.
- \* 이러한 국제 정세의 변화 속에서 일본의 정치는 보수당인 자민당에 의하여 주도되었다.
- \* 일소 공동선언 조약(1956년 10월), 국제연합 가입(12월)

다. 냉전 체제의 강화

- \* 미국-타이완 상호방위조약 체결. 동남아시아 집단방위조약기구 (SEATO) 성립 : 1954년
- \* 독일의 재군비 인정 및 NATO가입. 소련 등 8개국이 동유럽 우호협력상호원조조약(바르샤바 조약)

8. 평화 공존의 기운과 평화운동

가. 평화 공존의 기운

- \* 6.25 휴전, 인도차이나 휴전, 베트남 종전, 베트남 통일, 캄보디아, 라오스 독립 약속
- \* 중국과 인도의 평화 5원칙 발표. 제1회 아시아, 아프리카회의가 열림 : 식민주의 폐기와 평화의 확립 요구 (반동 10원칙)
  - 제3세계 나라들이 세계정치에 커다란 힘
- \* 민족 주권의 존중과 평화 공존이 세계사에 커다란 힘이 됨
  - : 미국과 소련 간의 평화 공존의 기운

나. 미군 기지 확장에 대한 반대

- \* 이시카와, 도쿄도, 오키나와 등에서 기지 반대 운동
- \* 수소폭탄 실험에 의한 참치 어선 피해로 금지 서명으로 제1회 원폭 금지 대회가 열림

9. 미. 일 안전보장조약의 개정

- 가. 기시 노브스케 내각은 제1차 방위력 정비 계획을 결정함과 동시에 조약 개정 교섭에 들어감 (1958년 10월) : 미일 상호 협력 및 안전보장조약(신안보조약)이 조인됨
- 나. 신안보조약에 대한 문제를 제기되어 신안보조약 반대 운동이 급속히 확대됨 : 내각과 자유민주당은 중의원에 경찰대를 도입하여 단독 체결을 강행함
- 다. 강행 체결에 대한 국민의 계속된 반대에도 불구하고 비준서가 교환되고 내각은 총사퇴함

10. 1960년대의 고도 경제 성장

가. **미국과의 협조 체제 속에서 일본의 경제**는 비약적으로 발전하였다. 일본은 1950년대 후반에서 1970년대 초에 이르기까지 연평균 10%에 달하는 경제 성장을 이루었고, 산업 구조도 선진국과 같은 제2, 3차 산업 중심으로 바뀌었다. 일본은 냉전 체제 속에서 미국과의 유대를 강화하여 자위대라는 군대를 보유하면서 경제를 회생시키는데 성공하였다.

나. **고도 경제 성장**

- \* 도쿄 올림픽(1964년) 도카이도 신칸센, 메이신 고속도로 개통(1965년)
- \* 도시의 인구 집중 : 일본 주택공단 발족(1955년), 오사카 등에 뉴타운 건설(1960년)
- \* 가전 제품의 보급 : 텔레비전, 전기세탁기, 전기냉장고 (세 가지의 神器)
- \* 진무(神武) 경기 : 1955년대 후반부터 연 10%를 넘는 경제의 고도 성장
- \* 고속도로만 장비, 주택 단지 조성, 자동차 급증, 에너지자원의 석유로 전환

다. **소득 배가정책** : 이케다 하야토 내각

- \* 국민의 관심을 정치에서 경제로 전환
  - 석유 화학공업, 전자공업 등 새로운 산업부문이 발전함
  - 무역의 자유화. 자본의 자유화 (1960년), 경제협력기구 가입(OECD, 1964년), 국제통화기금에 포함
- \* 무역 수지의 흑자 : 중화학공업제품 중심의 수출 확대. 동남아시아에 대한 해외 투자 증가
- \* 농촌의 변화 : 공업 발전에 의한 농공 간의 소득 격차 해소와 농업 경영의 자립을 호소하여 농업 기본법이 제정 → 농업 인구의 감소와 전업 농가의 감소

다. **전후의 고도 성장**

- \* 1955년~1965년 : 광공업 생산 3.7배 증가, 경제 성장률 연평균 10%
- \* 1965년~1973년 : 국민 총생산량 3.5배 증가, 경제 성장률 연평균 10%. GNP 세계 2위

라. **전국 종합개발 계획**

- \* 지방 산업도시의 발달 : 물, 대기 오염 분제 발생 → 공해대책기본법 발표, 환경청 설치
- \* 지역의 생활과 환경을 지키는 주민운동 : 공해, 복지대책의 성과 → 미노베 료키치 도쿄도 지사

마. **베트남 전쟁과 일본**

- \* 베트남 내전 : 1960년 ~ 1973년 → 미국의 패퇴
  - 미국이 내전에 개입하면서 일본의 미군 기지는 베트남 전쟁의 후방 기지로 활용됨
  - : 베트남 반전 운동, 미군의 무기, 군용품 수송에 반대하는 운동, 오키나와 기지 철거 요구
  - 한일 기본 조약 조인(1964년), 아시아에서 미일 협력의 강화를 약속함(1965년)

11. 戰後 문화의 발자취

가. 戰後 문화의 출발

- \* 역사의 과학적 연구
  - 도로 유적, 이와쿠주 유적, 후지와라씨 삼대의 유체 조사와 神代부터 천황의 사적을 중심으로 기술된 역사 교과서가 새로 쓰임
- \* 자연과학 : 물리학 분야의 노벨상 수상, 일본 학술회의 발족
- \* 문 학 : 노마 히로시의 '진공지대', 다니자키 준이치로의 '세설' 등이 간행됨
- \* 영화와 라디오
  - 구로자와 아키라 감독의 '라쇼몬' : 1951년 베네치아 영화제에서 그랑프리 수상

나. 텔레비전, 만화, 주간지

- \* 텔레비전 방송(1953년) : 활자의 소외 현상, 영화, 연극, 음악회의 관객 감소
- \* 주간지, 만화가 성행 및 비디오 보급 (1980년대)

다. 문화와 학술의 발전

- \* 과학 기술의 연구 개발 : 원자력 기본(1955년), 남극 관측(1956년), 최초의 인공위성 '오스미'(1970년)
- \* 급속한 개발 : 유적의 파괴가 진행되었지만 다카마스 고분의 벽화, 이나리야마 고분의 철검 명문, 요시노가리 유적 등 새로운 역사 발전도 있었음
- \* 문 학 : 사회파 추리 소설, 역사 소설
- \* '사요(斜陽)'라고 불리는 영화 : 전쟁과 청춘, 이웃집 토도로 등 현재적 문제를 추구하는 작품

라. 한편 일본은 주변 국가들과 청산하지 못한 과거의 문제들을 그대로 떠안고 있다. 한국과도 1965년 한, 일 기본조약을 맺어 국교를 재개했지만 당시 현안이었던 독도 문제 등은 명확하게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겨두었다. 지금도 문제가 되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에 대해 일본은 정부 차원의 보상을 거부하고 있다. 이처럼 과거에 대한 무반성이 주변 국가와의 미래 지향적 관계를 저해하고 있다